## 순천향



## PHOTO ESSAY

## 복

새해의 첫 인사는 모두들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복은

복권 당첨과 같이 돈 많이 벌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탈 없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입니다.





## CONTENTS

통합 의료워보 Vol.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PHOTO ESSAY

신년사

복(福)

02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0.3 김성구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04 서유성 · 이문수 · 황경호 · 오천환 병원장

Feature

special feature

05 신년특집 | 순천향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special feature 12 순천향의료원, '병원 감동시대' 연다

> 14 부천병원. 'FERCAP 국제 인증' 획득

16 천안병원 환골탈태! '실력 좋고 시설도 좋은' 병원 되다 focus1

18 각 병원 홍보대사들. '순천향' 인지도 높이고 좋은 이미지 키웠다 focus2

Confidence

history 20 향설 서석조 박사. 환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스타 의사'

22 구미병원 안지영 교수 "웃음꽃 피는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special family

> 24 field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우리가 바로 '병원 얼굴'이다"

new medicine1 28 '종골 재건술' 발표한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팀

30 new medicine2 식도무이완증환자 내시경 근절개술 성공한 조주영 교수팀

> 32 무흉터 내시경수술의 달인, 천안병원 이석호 교수 doctor

34 육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슈퍼맘', '월경전증후군'더 심하게 앓는다 knowledge 1

knowledge 2 원인 불분명한 간농양 환자, 대장암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

medical campaign 38 40대를 '당뇨병' 으로부터 지켜래

40

Communion

42 강원도의 맛! '감자옹심이' doctor recipe

> 44 아름다운 눈꽃의 향연, 덕유산 능선길 travel

trend 46 서바이벌 프로그램 전성시대에는 오디션 스타만이 '대세'인가

'국민 할때' 김태원 "잠시의 고통은 미래의 큰 힘입니다"

48 **TESTONI** world class

people

50 생각의 함정 hook

movie & stage 51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공연

Communication

52

56 letter of thanks

> schedule 57

Back cover

순천향 뉴스

동창회 광고

진료 일정표

감사 편지

〈순천향〉 애독자께 알림

〈순천향〉을 보시면서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사보 제작에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흑룡' 의 해를 맞아 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순천향의료원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작가 · 오진목















발행일 2012년 1월 16일 발행인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 홍보팀 02-709-9120 기획 편집 제작 피앤플러스 백승주 02-2269-5689

인쇄

상림인쇄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화합의 전통이 회복되고 심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서 교 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순천향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과 법인 산하 모든 순천향 기관들에도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한 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 입니다.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한 해가 사랑과 행복은 가득 담겨 있고 슬픔과 갈등은 거의 없는 좋은 선물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병원장님을 맞으신 순천향 산하 병원들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로 우리 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천향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순천향 가족 여러분!

지난해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우리 의료원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내실을 닦아 나 갔던 한 해로 기억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지난날의 고통과 수고가 올해의 기쁨과 보람으로 보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순천향의 미덕이자 태동 당시부터 이어져 온 구성원 간 '화합'의 전통이 회복되고 심화되기를 바랍니다. 동료간, 계층간, 상하간의 경계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전통을 가진 우리 순천향 가족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정한 한 가족입니다. 잠시나마 있었던 소원함을 펼쳐 버리고 안정되고 발전적인 병원문화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합시다. 덧붙여 우리들 사이에 좀 더 활발한 소통과 이해가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소통의 의미를 남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진정한 소통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소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료원의 미션은 '의료를 통한 인간사랑의 구현' 입니다. 제일 큰 병원이 아닌 제일 좋은 병원, 오직 하나뿐인 병원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사랑의 순천향만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하고 어느 병원보다 가족적이고 따뜻한 병원을 만들어서 환자들의 만족도와 병원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작은 불편함이나 마음의 불안까지도 없애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의료를 통한 인간사랑'을 구현할수 있는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병원을 다른 병원과는 다른 특별한 병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순천향 가족 여러분!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좋은 일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제까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병원의 역사와, 대다수 구성원들의 순천향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당장 우리 앞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참 의료를 통해 인간 사랑을 구현하는 명품병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잊지 말고 키워 나갑시다. 이를 위해 대단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정진한시다

##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병원의 온 가족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매진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봉사는 반드시 인정받고 큰 축복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우리 의료원의 도약과 전진, 그리고 순천향 전 가족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1월

## "환자 중심, 최상으로 서비스하는 병원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순천향 교직원 여러분!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는 순천향은, 故 향설 서석조 박사님께서 1974년에 인간사 랑의 정신으로 한남동에 개원, 이제는 의료원 산하 4개 병원 3,000병상의 전국적인 대 의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비전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료원이 많이 발전하였으나, 현재 의료원 및 병원계의 내·외부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러 보건 의료정책에 의하여 경영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설, 진료 전문화, 경영개선 추진 등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상태로 이젠 조금만 소홀히 하면 경쟁대열에서 낙오되어 도태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산하병원 노사 대립·갈등으로 병원 발전을 위한 교직원의 마음이 단합되지 못하였습니다.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전 직원이 마음을 합쳐 의료원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향 교직원 여러분! 구성원이 공감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 모든 잠재력을 하나로 모아 도전 과 창조적 변신으로 최단 시간 내 초일류 의료기관을 만들어 봅시다.

이에 순천향 교직원 여러분께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원 산하병원과 노사간, 노노간 모든 구성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장으로 소통이 차단되고 서로간의 신뢰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과 각 병원, 산하병원 상호간, 교수 및 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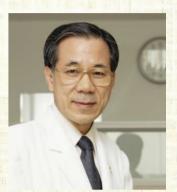
자율과 책임운영체계 정착, 경영 경쟁력 키움으로…. 의료원은 모든 것을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공정하게 다시 점검해 개혁하고, 무관심과 적당주의가 없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각 병원은 병원장 및 보직자를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운영체계를 정착시켜 선의의 경쟁과 협력 시스템을 통해 각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상태가 건실한 의료원으로 만듭시다. 또한 산하병원 간의 협력과 상호보완을 통해 각각의 고유 브랜드를 완성시키고, 시너지 효과 창출로 최고의 의료원으로 거듭납시다.

환자 중심 병원,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산하 병원은 진료의 특성화, 신기술 개발, 진료 시스템의 개혁, 공간 재조정 등을 통해 환자 중심, 인간사랑의 순천향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봅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수님들의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의 활성화, 또한 행정부서의 업무를 계량화하여 지표에의한 철저한 목표관리를 통한 책임운영과 목표를 달성토록 합시다. 열심히 일하는 분은 대우를 받고 성과가 떨어지는 분은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이 되도록 합시다.

## 순천향 교직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의료원이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이냐고 묻지 말고, 의료원을 위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10년 후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발전된 순천향 대학교 중앙의료원을 그려봅시다. 구성원 모두 신뢰의 바탕 위에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면 의료원 및 산하병원은 단시일 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김 성 구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 "즐겁고 재미있는 병원, 출근하고 싶은 병원 만들어야"



서 유 성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 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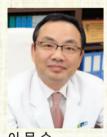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도 '용꿈을 이루는 한 해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을 빌면서, 올 한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뢰 경영입니다. 현재 우리 병원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입원과 외래, 응급실, 진료협력센터.

종합건진센터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환자 편의, 환자 진료 위주로 사고하 고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활용입 니다. 무엇보다 '나' '우리 과' '우리 탐'의 희생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문화의 혁신입니다. 즐거운 병원, 재미있는 병원, 출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2012년을 시작하면서, '재미있게 일하는 병원'을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서른살,이제 지역을 넘어 해외까지 바라봅시다"



이문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순천향을 찾아 주시는 환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축복으로 가득 찬 한 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병원 가족들에게 2012년은 여느해보다 더 뜻 깊고, 가슴 설레는 해입니다. 개원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 니다. 특별한 새해에 흑룡(黑龍)의 상서로 운 기운도 받아 천안병원은 더욱 큰 발전

을 이루고, 더욱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30년간 지역의료의 중심이었던 천안병원은 이제 지역을 뛰어 넘어, 전국을 아우르고 해외를 바라보는 위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당당한 자부심과원대한 꿈으로 서른 해를 맞이합니다. 2012년 천안병원은 나이서른에 걸맞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고객들에게감동을 주는 병원, 창조적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병원, 순천향의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의 삶의 터전인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황 경 호** 부천병원 병원장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병원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료를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수지 균형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진료지표와 여러 평가항목을 적극적 으로 관리해 대학병원의 품격을 높이고 지 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우리 조직의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순천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이 모든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은 교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인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안정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오 천 환** 구미병원 병원장

친애하는 순천향 교직원 여러분! 새로운 안정을 위한 임진년 용의 해가 밝 았습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해 순천향 가족 여러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어려운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구미병 원은 전 교직원이 힘을 합쳐 열심히 근무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서글프고, 속상한 일은 모두 잊어

버리고 내일의 안정을 향해 새 출발을 해 봅시다.

그리고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환자 중심 열린 거점병원' 으로서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안정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 봅시다.

새해에도 순천향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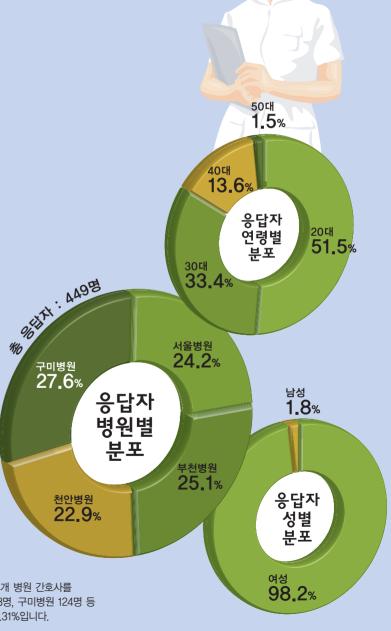
의료인의 건강법 2탄

순천향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백의의 천사 간호사들의 희로애락, 궁금하지 않으세요?

24시간 지치지 않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간호사들의 건강비법은 또 무엇일까요? 순천향 대학교병원 간호사 449명이 응답한 좋아하는 의사와 싫어하는 의사, 그리고 환자들과의 애환, '천사' 들의 건강비법과 즐겨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까지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의료인의 건강법' 신년특집 2탄입니다. 신년 특집 '순천향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 분석은 단답형 자유응답 방식에 따른 연관 분류방식을 사용해 좀 더 다양하고 생생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글 · 통계분석\_ 한정현



설문 진행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부천 천안 구미의 4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병원 109명, 부천병원 113명, 천안병원 103명, 구미병원 124명 등 모두 449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5.31%입니다.



## 2012년 새해를 맞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병원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여념이 없는 간호사들 자신은 과연 어떤 운동과 취미활동을 하며, 어떤 음식과 건강식품을 섭취하는지 ▲간호사들이 일반인들에게 권하는 건강수칙은 무엇인지 ▲간호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의사와 환자의 유형은 어떤지 ▲ 힘든 일은 무엇이지 ▲선물은 무엇인지 ▲즐겨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어플)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 '나의 건강비법' 1위 | 걷기, 채식과 규칙적인 식사, 비타민제 복용

순천향 간호사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가 4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 자체가 운동' (1%)이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역시 걷기를 최 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건강법인 '규칙적인 운동' (18.2%) 중에서도 상당수는 규칙적인 걷기와 산책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일 때문에 걷고 건강을 위해서도 걷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다음 으로 등산(5.2%)보다는 스트레칭과 체조(7.3%)를 더 많이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순천향 의사들은 걷기와 꾸준한 운동 다음으로 근력운동 과 달리기를 꼽은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정적인 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 밖에도 백팔배와 보드, 스쿼시, 마음운동(수양), 훌라후프 등의 답도 있었다.



## 간호사들의 적, 군것질

순천향 간호사들이 일상 식생활에서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채식(22.5%)과 규칙적인 식사(17.4%)였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되도록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시도 때도 없는 응급환자와 불규칙한 근무에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 셈. 이로 인한 군것질과 야식, 패스트푸드를 안 먹는 것(13.8%)도 간호사들의당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맛있게 먹기(4.0%)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식문화가양에서 질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삼십대 여성이 많은 순천향 간호사들의 미감은 재미와 무화를 더불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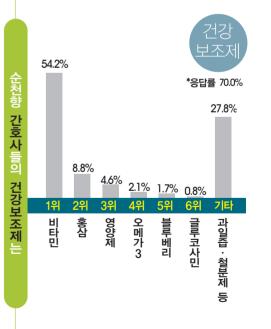
# \*응답률 87.6% 17.4% 13.8% 13.1% 15.0% 15.0% 17.7% 5.4% 4.7% 15.0% 17.7% 5.4% 4.7% 15.0

## 건강보조식은 비타민과 홍삼 정도

순천향 간호사들의 건강보조식도 역시 비타민(54.2%)과 홍삼(8.8%)이었다. 하지만 응답률이 70%로 저조한데다 응답 중에는 '역시 밥이 보약'이라는 응답과 '건강식은 먹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어 일상식 외의건강식은 그리 선호하지 않는 비중도 상당했다. 비타민과 홍삼에 이어 각종 영양제(4.6%)와 오메가3(2.1%)가 뒤를 이었고, 이 밖에도 블루베리, 글루코사민, 배즙, 양파즙, 민들레 추출액, 녹즙, 철분제, 칼슘제, 혈액순환개선제, 알로에 등을 섭취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이 많은 의사집단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경우 홍삼보다는 비타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오메가3 다음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선호했으나 간호사들의경우 블루베리와 글루코사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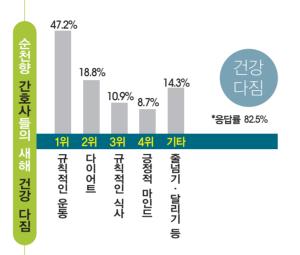




## 새해 건강 다짐 1위 | 규칙적으로 운동하겠다

건강을 위해 순천향 간호사들은 뭐니 뭐니 해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하겠다' (47.2%)는 답을 가장 많이 했다. 콕 집어서 요가와 스트레칭과 다이어트(18.8%)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뒤를 이었다. 감량 목표는 5~10kg 가량. 바쁜 일과를 생각해보면 실현 가능성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겠다' (10.9%)는 응답도 많았다. 4위는 '미소 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8.7%)는 예쁜 천사표 다짐이 차지했다.





## 국민에게 권하는 건강 수칙 1위 | 꾸준한 운동과 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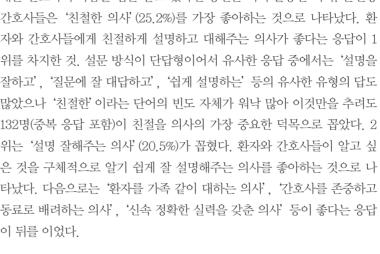
"새해에는 아무리 바빠도 꼭 10분씩이라도 운동하시고, 담배는 끊으시고, 긍정적이고 유 쾌한 생각 잊지 마세요." 환자 간호의 최일선 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건강을 위해 규칙적 인 운동(39.6%)과 금연(13.7%). 긍정적인 사 고와 건강한 정신력(13.4%)을 당부했다. 건 강한 식사 습관(12.8%)과 규칙적인 식사 (6.3%).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5.4%)과 정기 적인 건강검진(3.6%)도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이 밖에 절주와 적절한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충분한 수면과 체중 조절 등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강 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편해야 하고, 검사장비와 기법이 발달했으니 정 기검진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질병에 미리 예방 해야 한다는 의미다.



## "나는 이런 의사가 좋다." 1위 | 친절하고 설명 잘하는 의사 좋아

간호사들이 의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헌신 적인 모습? 수려한 외모? 출중한 실력?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의사라 면 스스로 잠깐 생각해본 뒤 읽어보시길. 의사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 내는 간호사의 마음을 십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의사, 순천향 간호사들은 '친철한 의사' (25.2%)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자와 간호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대해주는 의사가 좋다는 응답이 1 위를 차지한 것 설문 방식이 단답형이어서 유사한 응답 중에서는 '설명을 잘하고', '질문에 잘 대답하고', '쉽게 설명하는' 등의 유사한 유형의 답도 많았으나 '친절한' 이라는 단어의 빈도 자체가 워낙 많아 이것만을 추려도 132명(중복 응답 포함)이 친절을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2 위는 '설명 잘해주는 의사' (20.5%)가 꼽혔다. 환자와 간호사들이 알고 싶 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는 의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는 '환자를 가족 같이 대하는 의사'. '간호사를 존중하고 동료로 배려하는 의사', '신속 정확한 실력을 갖춘 의사' 등이 좋다는 응답 이 뒤를 이었다.



## "나는 이런 의사가 싫다." 1위 | 짜증내는 감정 기복이 심한 의사 싫어

간호사들이 싫어하는 의사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했다.

1위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감정 기복이 심한 의사' (48.7%)가 차 지했다. 2위는 환자 상담을 잘 하지 않거나 아예 환자 만나기를 꺼리는 의 사가 싫다고 응답했다. 3위는 '권위적인' 의사가 차지했다. '반말하는 의 사'. '간호사를 무시하는 의사'. '불친절한 의사'. '능력없는 의사'. '설명 을 간단히 하거나 안 하는 의사'등이 싫어하는 의사의 유형인 것으로 나 타났다.







## "나는 이런 환자가 좋다" 1위 | 치료에 긍적적 · 적극적인 환자가 좋아

쾌유를 소망하는 뜻이 통하기 때문일까? 순천향 간호사들은 '긍정적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환자' (35.2%)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다. 나을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간호사는 물론 환자 자신에게도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간호사들이 좋아하는 환자의 유형은 '밝고 상냥하게 웃는 환자' (11.7%), '병원의 규칙과 처방을 잘 따르는 환자'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의 긍정과 외면의 미소, 그리고 적절한 처방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쾌유의 3대 명심보감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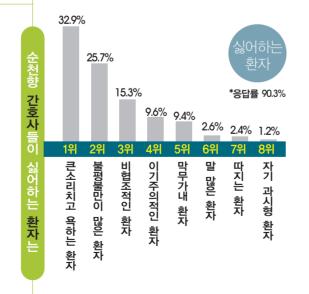


## 

## "나는 이런 환자가 싫다" 1위 | 큰소리치고 욕하는 환자 싫어



간호사들은 큰소리치고 욕하는 '막말 환자' (32.9%)를 가장 싫어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불평환자' (25.7%), 치료를 불신하고 협조하지않는 '비협조 환자' (15.3%), 다른 환자는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먼저 하기를 원하는 '이기적 환자' (9.6%), 대화가 통하지 않고고집부리는 '막무가내 환자' (9.4%), 같은질문 계속하는 '말 많은 환자' (2.6%),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깐깐하게 꼬치꼬치 따지는 '까칠한 환자' (2.4%), 지인을 들먹이며자기를 과시하는 '장군 환자' (1.2%) 등이 뒤를 이었다.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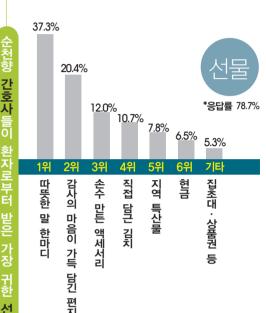
## 환자에게 받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1위 | 따뜻한 말 한마디

순천향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받은 선물 중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 (37.3%)라고 응답했다. 임종하시는 분이 남기고 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퇴원하며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던 한마디는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마음속 비타민이다. 감사의 마음이가득 담긴 편지(20.4%)도 간호사들에겐 잊지 못할 선물이다. 때로는 손수만든(12.0%) 볼펜과 수세미, 한지로 만든 지갑과 스카프 등도 거절하지 못하는 정성이가득 담긴 잊지 못할 선물들이다. 이 밖에도 직접 담근 김치나오징어 같은 특산물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께서 속치마에서 꼬깃꼬깃 지폐를 꺼내 쥐어주시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 즐겨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1위 | 카카오톡

순천향간호사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단연 카카오톡(63.2%)이었다. 채팅과 메신저 서비스는 카톡으로, 소셜네트워킹은 페이스북(17.3%)을 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업무 관련 어플인 '나는 간호사다' (4.4%)를 활용해 복잡한 교대 근무와 스케줄 관리에 사용하고 있었다. 심심할 때 스트레스 풀 때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깜찍한 게임 앵그리버드(3.2%)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응급실과 병의원 찾는 데 유용한 '1339' (2.4%) 어플 및 다음과 네이버 어플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 5€1





## '병원 감동시대' 연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가족 같은 보살핌 선사하겠다고 선언… 교육과 조직 개발에 힘 쏟아

고객 감동이 곧 기업 성장과 직결되는 시대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발 걸음이 줄어든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백해무익이다. 병원 들은 그동안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높 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 순천 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병원 감동시대 를 선언해 주목된다. 고객 감동 마케팅 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봤다.

정리 \_ 편집부

병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즉, 고객이 찾지 않는 병원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고객 감동 마케팅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대외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CRM(고객관계관리)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벌써 십여 년 이 훌쩍 넘었다. 십여년의 시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당시 의료계에서 CRM의 개념 조차 정립돼 있지 않았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달랐다. CRM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직원 확보와 육성해 매진했다.

뿌리를 튼튼히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우수 인재 확보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의료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아울리, 병원 구성원 개개인이 최고의 업무능력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일체감 조성, 부서간 협조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직 개발에 관한 훈련에 힘을 쏟







았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 병원이 CRM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다. 상대방의 요구(질환 치료)가 분명한 산업이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바뀌고 있다.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고객만족경영은 병원 깊숙이 스며들어왔다. 그는 또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대표 고객감동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종사자 모두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내일보다는 미래를 밝히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 ◆고객감동, 이제는 당신이 주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외부 고객 응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던 것을 지난 해부터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을 추가했다. 이 역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2010년 말부터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사내 CS전문 강사를 육성했다. 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능력을 지속으로 향상시켰다.

사내 강사들의 CS 활동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부서별 분담 체계를 갖추고 월별 분기별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 각 병원별로 100회가 넘는 현장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굳건히 했다

작은 것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서비스에도 힘을 기울였다. 전국 각 병원은 '사랑 전달' 등의 행사를 통해 아침 일찍 각 부서를 찾아 간식거리를 나눠주며 즐거운 하루를 열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병원내에서도 소외 될 수 있는 이들에게 작지만 큰 감동을 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미화부, 주차팀, 보안팀, 영양팀 등은 병원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지금처럼 깨끗하고, 튼튼한 이미지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 ◆"행복트리·고객감동 바이러스·행복 전령사가 되겠다"

이에 CS 부서는 음료수를 전달하며 이들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따스함이 스며든 한 잔의 음료수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한 순간에 눈 녹듯 녹이고, 새로운 각오로 중무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 밖에도 매월 교직원 정기 조회시간에는 제일 먼저 직원을 맞이하고, 재미있는 율동과 함께 '고객맞이 송'을 열창해 환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또 퇴원 고객에게 조그마한 선물과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감동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패러디 포스터 제작, 해피팩토리 이벤트 등을 통해 아름다운 순천향, 이야기가 있는 순천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종사자 모두는 행복트리가 되겠다는 각오다. 사내 강사들의 활약 덕분에 행복트리, 고객감동 바이러스, 행복 전령사가 되겠다는 각오는 전국 각지로 골고루 전파됐다.

사내강사가 뿌려놓은 씨앗은 고객 감동을 위한 다양한 열매를 맺었다. 주요 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은 미술 전시회, 꽃꽂이 공예품 전시 등을 통해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따스함으로 가득한 엔돌핀을 돌게 했다. 또 벨리댄스 공연, 합창 등 자신의 장기를 활용한 감성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사내 강사부터 의사까지, 미화팀에서 응급실까지 병원 구성원 모두가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쉬는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12 <sub>순천향</sub> 의료원보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 'FERCAP 국제 인증'획득

임상시험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 입증받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세계보건 기구(WHO) 산하 생명의학연구윤리 국제연합인 FERCAP(Forum for Review Committiees in Asia and the Western Pacific)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대학병원이 갖춰야 할 고유 기능의 하나인 '연구' 분야가 세계적 수준 에 올랐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FERCAP 설립 의 배경과 함께 이번 인증을 받기 까지의 과정을 알아봤다.

글 편집부

## 생명의학연구윤리국제연합, 반인륜적 실험에 반대해 창설된 국제기구

생명의학연구윤리국제연합(FERCAP)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로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FERCAP의 역사는 불과 10여년에 그치지만 그 배경은 1947년 뉘른베르크 재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치의 인체실험에 참여한 의사와 과학자들이 의학발전, 난치병치료, 국익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옹호한데 대해 뉘른베르크 재판부가 '아무리연구의 목적이 숭고하고 그 결과가 가져올 이익이 클지라도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제2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물론 패망국들까지 반인륜적 인체실험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강제수용소의 수용인들을 대상으로 온갖 인체실험을 자행했다. 세균전, 화학전과 관련된 실험, 압력, 추위 등의 물리적 실험까지 반 인륜적인 실험들이 진행된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부는 나치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행한 인체실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학적, 윤리적 기준을 고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다.

재판부는 최종 새로운 10개 조항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시작된 세계의사회 윤리



FERCAP 국제인증서 수여식 장면.



FERCAP 관계자들은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 정보 가 포함된 연구자료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노 력하는 모습에 깊은 이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원회는 1954년 '제네바 선언\_인체실험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를 발전시켜 1993년 '헬싱키 선언'을 채택했다. 이러한 역사와 배경을 내포하고 있는 FERCAP은 현재 헬싱키 선언을 바탕으로 임상연구의 윤리·과학적 타당성 심사를 통해 국제적 기준을 통과하는 기관에게 FERCAP 국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철저한 윤리규정 준수로 임상연구 윤리성과 안전성 확보

대학병원은 의료 기관이자 교육 및 연구 목적의 기관이다. 따라서 환자 진료와 더불어 학생 실습과 전공의 교육 등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료술기 향상을 통한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원내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때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은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가 우선 검토의 대상으로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 및 비임상 관련 정보는 실시하고자하는 임상시험에 적합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이러한 윤리적 원칙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지난 11월 23일 공식적으로 FERCAP 국제 인증을 획득,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입증받게 되었다. 또한 향후 여러 국가들의 임상연구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 등 연구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FERCAP 국제 인증 획득의 절차는 '인증 신청 ▶ 실사 날짜 지정 ▶ 실사 ▶수정 · 보완 답변서 제출 ▶ 최종 인증' 순으로 진행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IRB의 경우 이번 FERCAP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1년 이상 지속적인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본격적으로 FERCAP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

정한용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FERCAP 국제 인증을 통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임상시험은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높아진 위상만큼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안전 보호 및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 SCI: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IRB, 생명윤리 지키기 위해 2001년 설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임상 시험위원회 IRB는 본원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과 학술 목적의 임상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기구로 2001 년 설립됐다.

2001년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여러 심사위원들의 노력으로 임상연구의 발전과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임상연구의 검토와 심의, 연구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해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의 인증을 받은 바 있다.

14 <sub>순천향</sub> 의료원보





## 환골탈태! '실력' 좋고 '시설'도 좋은 병원 되다

천안병원, 과감한 투자 속에 혁신활동 진행…'쾌적하고 편리한 병원'으로 거듭나

### 정리 편집부

개원 이래 30년간 늘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천안병원.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실력은 좋지만 시설은 별로' 인 병원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딱지를 달고 있어야 했던 천안병원이다. 의학수준은 매우 높지만 쾌적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고객들의 아픈 지적을 받아왔던 것.

그랬던 천안병원이 최근 확 바뀌었다. 천안병원과 '낡고, 좁은' 과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2010년부터 2년간 과감한 투자 속에 지속적인 혁신활동들을 벌여온 결과다. 고객들은 이제 천안병원을 '실력도 좋고. 시설도 괜찮다' 며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천안병원은 정말 많이 변했다. 우선 입구부터 크게 달라졌다. 과거 입구에서 별관-본관-신관 앞 중앙주차장 주변을 흉물스럽게 둘러싸고 있던 높은 담장과 축대가 사라졌다. 개방감이 높아지고 정돈된 느낌을 줘,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대문에는 번듯한 병원 상징물도 세워졌다. 주차장 입구도 최신의 시설로 바뀌었으며, 중앙주차장 입구 쪽 주차면 30여 면은 환자쉼터로 편입되었다.

'향설송원(鄉雪松苑)' 이라는 널찍한 환자쉼터에는 정자 2개와 대리석 벤치 11개가 설치되었으며, 고급 정원수인 소나무 대목 25본과 중목 6본을 비롯, 벚나무, 철쭉, 눈주목, 영산홍 등 기타 정원수도 1만여 주 식재됐다. 24시간 음악도 흐른다. 수시로 다채로운 행사도 열리면서 이제 향설송원은 환자들에게 휴식은 물론 즐거움도 주는 명소가 되었다. '향설(鄉雪)'은 순천 향대학교와 천안병원 등 4개 부속병원의 설립자인 서석조 박사(1921~1999, 신경내과학을 처음 들여와 발전시킨 명의)의호. 그리고 '송원(松苑)'은 소나무 큰 정원이라는 뜻이다.

언덕마루의 향설송원을 지나 병원에 들어서, 잘 정돈된 중앙주 차장을 통과해 동쪽으로 이동하면 지금도 변신 중인 '외래진 료관'에 다다른다. 과거 화강암으로 둘러친 고풍스런 모습이 었지만 최근 현대적인 외관으로 갈아입었다.

세워진 지 20년이 넘은, 낡고 비좁던 외래진료관은 2010년 동편에 암센터가 신축, 연결되면서 변신을 시작했다. 서편 확장면적은 총 1,185.58㎡(359.64평)이며, 확장부의 외벽 대부분은 복층유리로 마감돼 개방감이 높고, 동시에 풍부한 자연채광으로 건물내부에서는 밝고 따뜻하고 건강한 느낌을 받는다.

외래진료관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형에 세워져 중앙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서편 현관은 사실 건물의 2층이다. 1층 현관은 성인 및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편 현관. 서편 2층 현관으로 들어서면 입구 좌측에는 기업은행 출장소와호텔 프런트와 같이 세련되고 편안한 분위기의 진료협력센터가, 또 맞은편 널찍한 공간에 외래원무팀의 수납 창구들이 늘어서 있다. 수납대기공간에는 채혈실도 붙어있어 환자들은 수납 후 바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과들은 점유면적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검사 및 치료실들을 한 공간으로 모아 진료전문성과 이용편의도를 크게 높였고, 또한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 아늑한 독립공간을 확보하면서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도 도모했다.

외래진료관의 꼭대기 5층부은 짧게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한 단기병동으로 탈바꿈했다. 총 57병상의 단기병동 옆에는 천안병원의 독보적인 진료 분야인 농약중독연구소를 찾아온 환자들이 생명을 되찾고 있는 'EICU(독성중환자실, 10병상)' 를 비롯하여, 갑상선암 환자들을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병실(옥소치료실, 2병상)'과, 수면장애 환자들의 원인을 찾아 주는 '수면다원검사실(2실)'도 함께 들어서 있다.

외래진료관의 마지막 변신은 소화기병센터. 10년 전엔 국내 최고의 첨단 시설로 명성이 높았던 소화기병센터는 내년 1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몸집을 늘리고, 새로운 기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활동들이 이어지면서 천안병원의 고 객만족도는 한층 높아졌으며, 환자 증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문수 병원장은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국 지역 환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면서, "혁신과정 중 많은 불편을 감내해주고 적극 동참해준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천안병원의 2020년 목표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충북, 경기 남부, 대전지역에서도 찾아온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천안병원과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는 많이 짧아진 듯하다. 2012년 천안병원의 혁신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2012년 말엔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 있을까?

## '순천향' 인지도 높이고 좋은 이미지 키웠다

전국 4개 병원 홍보대시들, 각 병원의 다양성 알리는 첨병 역할 톡톡…인물 면면도 각양각색

순천향대학교병원의 홍보대사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전국 4개 병원 홍보대사들은 순천향대학교병원의 다양성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라토너 이봉주부터 지역 봉사단체장까지 각양각색, 전방위 활약은 병원 인지도와 이미지 향상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 글 \_ 편집부

순천향대학교병원이 홍보대사를 임명해 병원 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에서 높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대사 위촉으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1년 365일 열심히 발로 뛰는 홍보의 장을 만들었다. 면면도 화려하다. 마라토너 이봉주,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수녕, 기상캐스터 배수연 등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물부터 지역 봉사단체장,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까지 다양한 색깔을 담아냈다. 각병원의 홍보대사 활약은 현재 진행형이다.

## 서울 병원

## 지역 여론 수렴해 이미지 향상에 기여

서울병원은 대규모 홍보대사 임명의 효시다. 서울병원은 지역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을 위해 2기에 걸쳐, 총 86명 의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제1기 41명은 용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용산, 성동, 강남, 서초 지역의 구의원과 새마을부녀회 등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위촉했다.

정확한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승, 배수연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제2기 45명은 서울시 각 구 새마을 부녀회장, 용산구 여성단체연합회, 국회의원 기관 및 단체 대표 등 서울 전 지역의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의 주요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순천향대학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순 천향대학병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병 원에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를 위해 각 홍보대사는 비전선포식, 우이령길 탐방행사, 용





산구민 건강걷기대회, 홍보대사 단합대회 등 병원의 주요 행사에 함께 참여해 소속감과 가족애를 함양했다.

## 부천 병원

## 스타 다 모였네…부천병원 얼굴 노릇 톡톡

부천병원 홍보대사들은 2003년부터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부천병원의 '인간사랑' 정신을 지역 사회에 전파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진정한 순천향인이라는 평이다. 특히 지난해 3월 15일에는 공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통해 42명이 새롭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로써 부천병원 홍보대사는 총 50여 명으로 증가했다.

부천병원에는 유독 별이 많다. 스타급 홍보대사들이다. 문화계 인사부터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부녀회 대표 등 각계각층으 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홍보대사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 와 함께 열렸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문수 병원장은 "세계적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순천향 가족이 돼 매우 기쁘다"며 홍보 대사 이봉주 선수를 환영했다. 이봉주 선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홍보대사가 돼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한 가족으로서 널리 병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이 고향인 이봉주 선수는 1995년 동아 국제마라톤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2011년 보스턴마라톤대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7년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등 각종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 32명 홍보대사 발벗고 나섰다

구미병원은 지난해 5월 3일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환자 중심 열린 거점병원'이 되기 위한 병원 비전을 선포한 가운데 지역





은 부천병원의 활발한 해외 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연을 맺었다. 또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과 김수녕 양궁 금메달리스트는 순천향 교양강좌가 인연이 됐다.

부천병원 교양강좌를 통해서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와 노하우를 전수한 이들은 또 다른 곳에서 순천향과의 인연을 풀어놓으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 동네 '스타' 부녀회대표 등이 부천병원의 얼굴이 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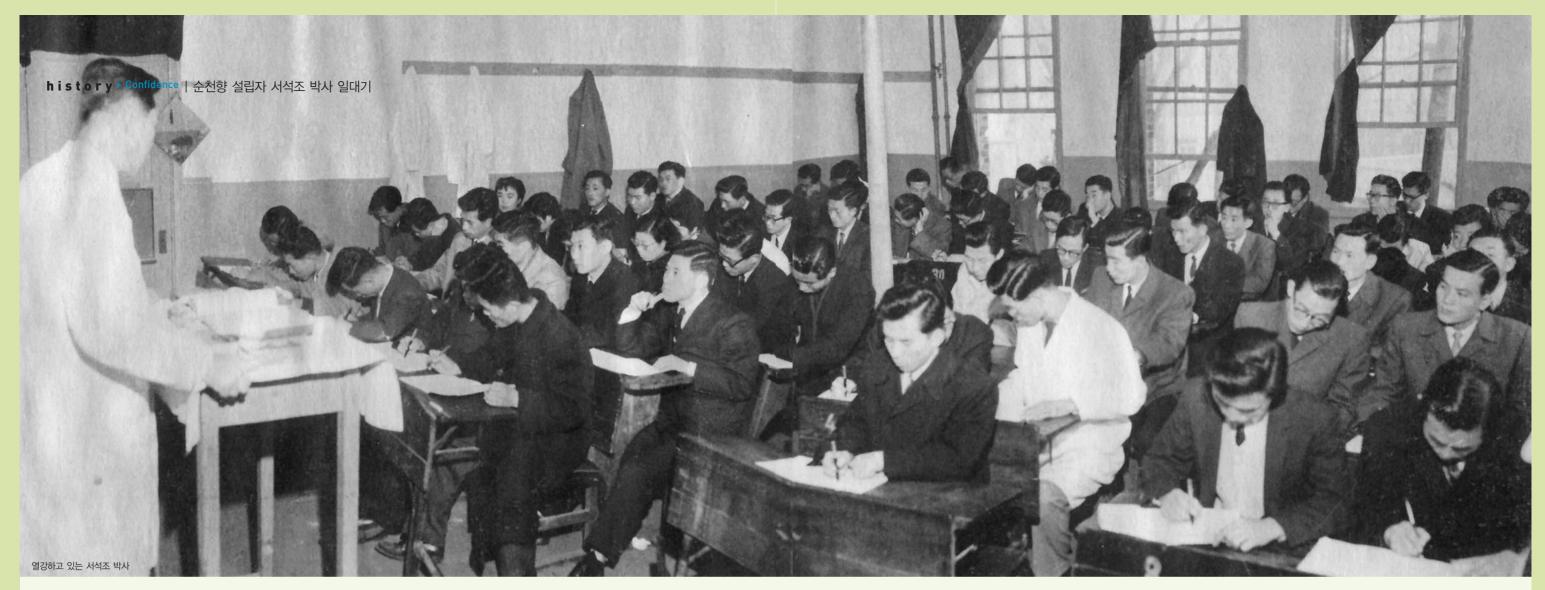
## 천인 병원

## 국민 마라토너, 순천향 가족 되다

천안병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홍 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2011 교직원 한마음의 밤 행사' 에서 존경과 덕망 있는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역 대학의 학장 및 교수, 시의원, 부녀회장, 봉사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홍보 대사들은 병원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안내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청취, 의견을 종합하여 병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사들은 구미병원의 한 일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외부홍보 활동 및 모니터를 함으로써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강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임을 강조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분기별 간담회, 정기모임을 통하여 정보교환 및 병원발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원은 대사들의 제안을 병원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열린 병원, 미래지향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8 <sub>순천향</sub> 의료원보



## 환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스타 의사'

환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치료 효과도 배가…영친왕과 인연도 각별

정리 편집부

서석조 박사가 의술만으로 뛰어난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다. 환자들이 박사를 믿고 의지한 것은 그가 환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 겨주는 의사였기 때문이다. 서 박사는 환자가 하는 이야기라면 그 무엇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이런저런 증세에 대한 요령부득의 설명이든, 엄살이 반 이상 섞인 통증의 하소연이든, 때로는 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자 개인의 신상 이야기까지 지치지 않고 들어주었다. 환자는 서 박사 앞에서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해졌고, 환자의 마음이 안정되면 치료 효과도 배가되었다. 서석조 박사라면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가끔은 부작용(?)도 있었다. 세브란스병원은 해방 이후 특진제 도를 도입하여 조교수 이상이 특진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들에 게서 인기가 높은 서 박사는 세브란스에서 특진료 수당을 많이 받는 교수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사정이 딱하 면 특진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때로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 들도 나타났다. 입원 보증비가 없다며 서 박사에게 아쉬운 소리 를 하는 것이다. 박사는 알면서도 속아주곤 했다.

서 박사가 가는 곳마다 환자가 몰렸다. 환자들이 서 박사를 따라다녔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도, 그 이후에 옮긴 가톨릭의과대학의 성모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64년 서 박사가 개원한 동은병원은 병상이 10여 개밖에 안

되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매일같이 몰려오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1968년 동은병원은 곡초서 박사에게 물려주고 새로 개원한 고려병원에 합류했을 때도 환자들은 서 박사를 따라갔다. 백병원으로 옮기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외과로 출발했던 백병원이 1972년에 150개 병상, 16개 진료과목의 종합병원으로 확대 개원하면서 서 박사는 내과로 '어탠딩'을 했다. 어탠딩이란 종합병원의 의사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약국도 따로 두면서 수입을 병원과 분배하는 제도이다. 서 박사는 백병원에 있으면서 이 제도로 하루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스타 의사였다.

##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귀국과 마지막 병상을 보살펴

이렇게 서석조 박사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대통령, 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등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들 의 주치의가 된 적도 여러 번이었다. 서 박사 자신은 특히 영친왕을 전담 치료했던 일을 즐겨 이야기하곤 레다

1963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뇌혈전 증의 세 번째 발작으로 실어증과 왼손을 제외한 전신 마비 상태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용태가 위중한 데다 가 한국에는 이렇다 할 뇌질환 전문의도 없지 않느냐 며 모셔갈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서석조 박사의 의학 적 판단이 주효하여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 서 박 사는 신장내과의 김학중 박사와 함께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산노(山王)병원에 입원해 있던 영친왕 과 이방자 여사를 모시고 입국. 김포공항에서부터 앰 뷸런스로 이동하여 성모병원 특실에 도착했다. 병실에 서 간단한 진찰을 마친 서 박사가 "이제 한국에 왔습 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영친왕은 창 밖 너머 꿈에도 그리던 고국 산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누구보다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영친왕이 고국에 돌아와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서 박사의 공이 컸던 것이다. Scr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안지영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팔방 미인이다. 아마추어 밴드 키보드 주자, 꽃꽂이 모임 회장, 미 술 동아리 회장 등 직함이 화려하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개인 의 취미를 모두의 행복으로 승화시켰다. 환우와 병원 의료 종사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다.

글 조영곤 사진 임운석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로비는 화사하다. 로비 곳곳은 꽃이 만발하고 따스함이 있다. 병원을 찾은 환우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 이유는 로비 곳곳에 자연을 배경으로 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기때문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등 주요 시설물 곳곳에 아름다운 향기와 작품으로 승화된 꽃꽂이 화분이 병원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바꿔주고 있다.

구미병원을 화사함과 행복,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승화 시킨 인물은 안지영 교수를 중심으로 한 순수회와 꽃사모 회원 들이다.

안 교수는 취미생활에 열심이다. 하지만 분명한 철학이 있다.

자신의 취미활동이 자신은 물론, 환우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고 환자 진 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믿음이 바로 그 것이다. 이와 관련, 안지영 교수는 "미술 작품을 그리고, 화사한 꽃꽂이 화분을 만 들 때면 행복과 즐거움으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며 "회원과 환우 모두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직업의 특성상 취미생활을 연속성을 갖고 하기란 쉽지 않다. 또 취미를 넘어, 행복을 같이하려한다면 더더욱 그

안 교수 역시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하루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또 자기 일에는 더욱 철저하다. 병원 내 평가도 좋다. 동호회 활동을 하며 직원들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

## ◆안지영 교수, 미소가 아름답다

안교수는 그래서 구미병원에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바이러스 전도사다. 행복이 전이된 직원들은 그 행복을 환우들에게 또다





시 나눠주고 있다

안지영 교수는 아름다운 미소 속에서 인품이 느껴진다. 그의 적극적인 취미활동이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안 교수는 의사 커플이다. 취미생활의 본격적인 입 문도 사실 남편 때문이었고 역할도 컸다.

남편이 활동하고 있는 스터디클럽에서 2005년 아마추어 밴드를 결성했다. 그런데 키보드 주자가 결원이었다. 안 교수에게 SOS가 와 우연찮게 키보드 주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미술의 세계에도 입문했다. 안 교수는 미술 세계와 조우하며 미의 깊이와 미의 멋을 알게 됐다. 하얀 백지에 수놓은 다양한 아름다

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열정을 더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미술 개인 레슨을 받으며 미술의 깊이와 미술의 멋을 알게 됐다. 병원 식구들에도 미술의 세계로 인도했다. 미술 동아리순수회를 결성하고 매년 한 차례씩 병원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꽃

꽂이 동아리 꽃사모에도 회원으로 가입해 취미의 폭을 넓혔다. 안교수는 병원일과 취미활동을 동시에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 여 항상 남편에게 미안하기 그지없다. 이에 남편은 "당신이 행 복하면, 난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하며 오히려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가 족들과 환우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이 가능했다.

주변에선 개인 전시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화다. 이 대목에서도 안 교수의 철학은 분명했다.

안지영 교수는 "개인 전시회? 좋죠. 하지만 에너지를 병원 가족, 그리고 환우들에게 집중하고 싶다"며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 그리고 환우들과 나누며 그속에서 행복을 또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피력했다. ■ SCH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는 병원의 간판 모델이다. 모든 내원 환자 가 가장 먼저 찾는 곳. 불안과 긴장이 가득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세 심한 배려와 질환을 정확히 짚어내는 숙련도까지 명성이 자자하다. 영상의학 과 스태프는 오늘도 병원 얼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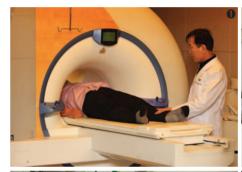
"영상의학과,

## 글\_조영곤 사진\_임운석

구미병원은 경북중서부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이다. 지역민이 찾는 거점병원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료 수준이 담보 돼야 한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능력, 서비 스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3박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 한 진단이다. 그래야 치료를 포함한 종합 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구미병원이 대표 거점병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영상의학과다.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는 지역 최고의 영상의학 진단 장비를 자랑하다 또 올해 PFT-(T를 도입하면서 모든 암 진단 이 가능해졌다.

장비가 최고여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구미병원 영상의학과의 노고 는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진단만 무려 월 평균 3만건이 넘는다. 병원 경영수입의 20%를 차지한다. 모든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기 때문에 친절이 중요하다. 병원의 첫인상을 좌우 하기 때문, 이들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구미병원이 건조하고, 차가운 곳이 아 닌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는 지역 유일, 진단 뿐만 아니라 시술이 가능하다. 자궁 동맥 색전술 등 다양한 인터벤션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영상의학과를 이끌고 있는 이상진 교수는 "영상의학과 모든 팀원은 친절과 진단 두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 다"며 "최고의 진단 장비가 최고의 결과를 도출시켜 환자의 빠른 쾌유를 돕는다는 자부심 으로, 매일 반복되는 긴장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 ④ 위장에 조영제를 투여한 뒤 X선을 투과하 여 진단하는 위장조영검사 중이다. 환자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 컨퍼런스를

##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친절'이 특효약

영상의학과는 MRI, CT, PET-CT, 특수, 일반, 혈관 촬영, 초음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환자의 최초 검사 단계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다. 모든 환자가 그렇듯 병원을 찾는다는 것 자 체가 불안과 초조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기기에 몸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라는 긴장에 몸이 얼어붙게 마련이다. 진단에 애를 먹이는 경우도 있다.

영상의학과 팀워들은 미소 띤 얼굴로 진단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으로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애를 쓴다. 친절교육에 대한 시간을 따로 할당할 정도다.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다. "무조건 비싼 게 좋다!"고 외치는 환자 때문에 곤란할 때도 많다. 이와 관련, 조장현 영상의학과 감독은 "MRI 장비가 상당히 고가다. 질환에 따 라 쓰이는 장비가 다른데, 무조건 MRI를 외친다"며 "폐 질환의 경우, CT가 가장 정밀하다.

24 순천향 의료원보 2012. 01 · 02 25 ● 인터벤션 시술을 하고 있는 양승부 교수.② 소아응급환자의 복부를 촬영하고있는 방사선사.

진교수 최교창교수

③ 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판독하고 있는 이상

◆ 암진단 PET-CT검사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그런데 MRI를 고집하니 난처할 때가 많다(웃음)"고 말했다.

그는 또 "친절도 정확한 촬영도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 또 집중"이라고 설명한 뒤 "팀원 모두가 10년 이상이다. 지역 최고라고 자부한다. 한 달에 한두 번꼴로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자리도 만들어 분위기도 최고"라고 덧붙였다.

## 병원 찾아 3만리? "이제는 없다"

구미병원은 올해 모든 암 진단이 가능한 PET-CT를 도입했다.

경북중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병원을 찾아서 대구로, 서울로 병원 찾아 3만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초기암 진단 또는 재발 환자 유입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암 검진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오니 명성이 자자한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특히 진단과 시술이 가능한 지역 유일 병원이라는 점도 대단하다. 자궁근종 색전술 등은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을 자랑한다.

자궁근종색전술은 전신마취 없이 주사비늘 정도의 미세한 관을 이용해 근종으로 가는 혈관을 차단시킴으로써 근종의 자연스런 괴사를 유도하는 인터벤션 시술법이다. 인터벤션 의학의 국내 선두주자 구미병원 양승부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양 교수는 "자궁근종색전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자궁근종이 너무 커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종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종을 방치할 때보다 임신 성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체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약 5mm 정도만 피부를 절개하고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인터벤션영역 치료에는 간암, 위장관암에 의한 폐쇄, 담관폐쇄, 동맥경화에의한 혈관 협착 혹은 폐쇄, 정맥혈전증, 정맥류, 자궁근종의 치료 등이 있다.

## 10년 이상 경력 가진 팀원들…오류 없는 정상 판독이 가장 어려워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하나같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한다. 영상의학과는 여타 진료과와는 다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흐름은 젊은 층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는 그 반대의 경우다.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하다. 영상의학과는 질환을 진단해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경력 즉, 고도의 집중력 등을 발 휘할 수 있는 숙련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는 파트별로 모니터 판독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 운 것은 정상 판독을 내리는 일이란다. 세 밀한 분석을 통해 정상 판독을 내릴 때 혹 시 모를 오류가 발생한다면 환자에겐 무엇 보다 큰 형벌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긴장감의 연속이다. 집중 또 집 중이다. 월 3만건이 넘는 진단 건수는 여 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영상의학과의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 치료보다 진단이 앞서는 시대!

병원 의료개념도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는 치료보다는 진단이 앞서는 시대라는 말이 중심에 섰다. 영상의학의 역할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는 모두가 자부심으로 폴똘 뭉쳐 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상상 초월이다. 하지만 병원의 중심. 의료서비스의 가장 핵심 역할로 부상하면서 스트레스보다는 자부심이, 피로보다는 활력이 솟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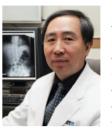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영상을 분석한다. 각과의 의사들은 하나같이 빠른 판독을 요청한다. 한 사람 앞에 모니터가 3개씩 놓여있고 모니터마다 영상이 띄워진다. 과거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을 비교하기도 하 며 정확한 판독을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 지 않는다.

영상의학과는 내과, 외과 등의 의료진들이 증상을 통해 짐작한 질병을 영상촬영과 판 독을 통해 확진이 가능하도록 도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확진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환자를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미니 인터뷰

## 이상진 교수

## "영상의학은 '의사의 의사' 다"



"미국의 경우, 영상의학을 '의사의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영상의학을 선택했습니다"

구미병원 영상의학과를 이끌고 있는 이상진 교수는 영상의학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풀어내며 대단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구미병원은 경북중서부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병원이다. 이상진 교수는 거점병원의 대표성 유지와 경북중서부를 넘어서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는데 영상의학과가 최고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하루 종일 정확한 판독 즉, 진단을 내리기 위해 영상과 씨름하는 팀원들의 업무강 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병원의 대표 얼굴이라는 자부심과 환자의 빠른 쾌유를 최일선에서 돕는다는 자긍심이 없다면 쉽게 지치고 말 것"이라는 말로 영상의학과를 대변했다.

그는 또 "진단과 시술이 유일한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또 차가운 기계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함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끈끈한 팀워크와 환자의 불안을 치유하는 앞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 평균 3만건이 넘는 진단은 고강도 업무량을 의미한다.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상진 교수는 수영 등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의사 위의 의사. 영상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자부심도 높다. 하지만 자부심만으론 국내 최고가 될 수 없다.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구미병원의 영상의학 장비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최고의 장비가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계발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영상의학의 실수도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영상의학과 모든 팀원은 늘 공부한다. 그리고 늘 토론한다"고 말했다.

## **윤주미** 간호사

## "영상의학과 일원이라는 게 행복해요"



비교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과는 병원의 간판 모델이다. 영상의학과내에서도 가장 먼저 환자를 맞는 이가 있다. 바로 간호사다. 1층 방사선실 등 영상의학과 대기실 풍경은 장터를 방불케 한다.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이 역력하다. 긴장은 사람을 민감하게 만든다. 괜한 일에 짜증과 불안을 동반하는 일이 다반사다. 윤주미 간호사는 표정이 밝다. 시간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느냐는 나이 지긋한 환자부터, 영상촬영 대기가 지루했는지 울음 보를 터트린 어린 환자까지 정신이 없다.

윤 간호사는 모든 환자에게 미소로 응대하고 있다. 불만 아닌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환자에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미안함을 동시에 전한다. 이쯤 되면 환자도 헛기침

을 하며 자신이 좀 심했다는 미안함을 전한다. "정신없죠, 그리고 다들 긴장하고 계셔서 민감한 것도 사실이구요, 그걸 알기에 최대한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윤주미 간호사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는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환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질문을 던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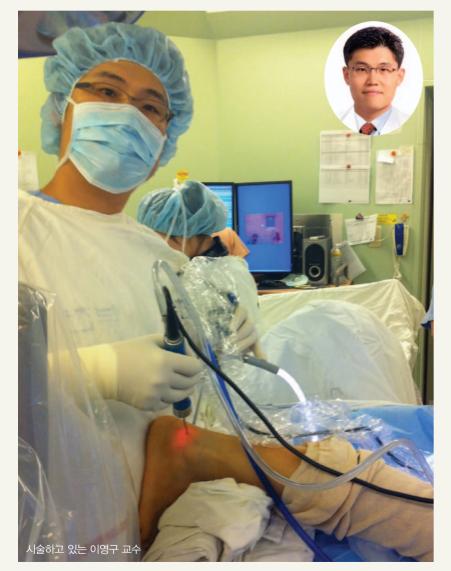
윤 간호사는 영상의학과 일원이라는 게 행복하단다. 그렇기 때문에 입가에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주미 간호사는 "바쁘죠. 쉴 틈도 없고 하지만 영상의학과의 팀원으로서 환자의 빠른 쾌유를 돕는다는 자부심으로 바쁜 일상을 위로한다"며 "다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주저 없이 영상의학과를 선택한다. 보람과 성취, 그리고 행복감은 다른 것과

· 26 순천향 의료원보

## 미끄러운 겨울산행. '아차' 하면 평생 완치 어려운 발뒤꿈치 골절 이제 '종골 재건술' 로 발 건강 되찾자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팀, 업그레이드 의술 '종골 재건술'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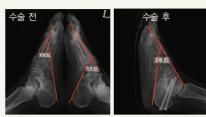
정리 \_ 편집부



눈이 수북이 내린 어느 날 겨울 산행을 강행 했다가 2m 아래로 떨어져 종골(발뒤꿈치) 골 절을 당한 박철민 씨(가명, 48세)는 종골이 5 조각났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다음 날 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종골 골절'을 찾아보던 박 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종골 골절 후 완벽하게 회 복했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 부분 의료진들은 '뼈가 잘 붙었다' 고 진단함 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증 이 느껴져 '뛰는 것은 꿈도 못 꾼다'는 댓글 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글들을 보자 박 씨 의 불안감은 증폭돼 물리적 통증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뒤늦게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다. 겨울 산행에서의 미끄러짐.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등 종골(발 뒤꿈치) 골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하 는 질환이다. 그러나 한번 골절을 당하게 되 면 평생 동안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수술을 해도 부정유 합과 관절염 등 2차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가 많아 환자들이 오히려 수술을 포기하고 통증을 동반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팀이 종골 골



왼쪽 발 종골 골절 후 오른쪽 발 정상 각도인 55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38도로 종골 높이가 낮아졌다. 관절 융합술을 받은 후 각도의 변화가 없어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왼쪽 발 종골 골절 후 오른쪽발 정상 각도인 42도에 비해 낮은 29도로 종골 높이가 낮아졌다. 종골 재건술을 받은 후 정 상에 가까운 39도로 교정이 됐으며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절에 대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수술법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교수팀의 '종골 재건술'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통증을 감 소시키는 한편 발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치료 아닌 '재건'에 초점…환자 만족도 높아

이영구 교수팀이 최근 종골 골절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종골 을 재건해주는 '종골 재건술' 을 시행.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의술을 선보였다. 이 수술 방법은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 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점 그리고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관절 기능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 법 등을 모두 극복한 한층 업그레 이드 된 의술로 종골 골절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환자들 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종골 골절 환자는 추락 시 받은 압박력 으로 인해 종골의 높이가 낮아지고 대신 옆으로 넓어지게 돼 복사뼈 아래쪽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복사뼈 아래 관절이 손상되면 관절염에 쉽게 걸릴 수 있다. 또한 종골 골절 로 뼈의 높이가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복사뼈 뒤쪽 힘줄이 힘을 받지 못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종골 재건술은 종골 골절 후 통증의 원인이 관절 부위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닌 종골의 부정유합에 의한 변형에 있다는 점을 새롭게 주목해 발전시킨 수술법으로 관절을 융합하는 것이 아 니라 종골의 높이와 넓이를 골절 이전의 모양으로 바꾸어주는 수술방법이다. 종골의 뒷부분을 절골시켜 나사를 이용해 고정 한 후 종골의 높이를 높이고 넓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 다. 현재 부천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3년 동안 종골 재건술을 실시한 결과 관절 기능을 제거해야 하는 관절 융합술 대상 환자 중 60% 이상에서 종골이 재건되는 놀 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종골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상당한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 수술을 다른 환자들에 게도 적극 추천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최근 의학기술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수동적 치료에서 진보 해 환자가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있도록 복귀시키 는 적극적인 치료를 지향하는 만큼. 종골 재건술은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해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 는 새로운 의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교수팀은 향후 현재까지 시행한 종골 재건술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 환자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영구 교수팀의 종골재건술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 문「종골 골절의 합병증에 대한 종골 재건술의 결과(Calcaneal Reconstruction for the Late Complication of Calcaneus Fracture)」가 SCI(E)급 학술지인 Orthopedics지(2011년 10 월, Vol 34)에 실려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SCH

## 종골 골절 수술법 비교

종골 골절 수술 (일반)	관절 융합술	종골 재건술
• 관절염, 부정유합 등 통증 수반	<ul> <li>종골 골절 수술 환자 중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시행</li> <li>관절기능 상실</li> <li>관절염 등 2차 부작용 발생</li> <li>수술 후 통증 완화</li> </ul>	<ul><li>관절 기능 정상화</li><li>통증 감소</li></ul>

발뒤꿈치 부위에 있는 족근골의 하나로, 윗부분에는 복사뼈(거골)가 관절을 이루고 있 으며, 아랫부분에는 피하에 닿는 아킬레스건(종골건)이 붙어있다. 종골은 사람이 발을 디딜 때 체중이 집중돼, 만일 종골이 없다면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28 순천향 의료원보 2012. 01 · 02 29



## "침을 삼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 순천향대학교병원 조주영 교수팀, 국내 최초 식도무이완증환자 내시경 근절개술 성공



조역 스처하대하고 조외역 스처하대하고

조주영 순천향대학교 조원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 정리 \_ 편집부

인천에 사는 30대 초반의 김00씨. 2003년부터 갑자기 밥을 먹기가 힘든 증상이 생기더니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는 죽을 먹는 것도 힘들어졌다.

2005년부터는 물을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 여러 병원을 찾았다. 가는 곳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며 술, 담배를 금하고 음식을 조심하라는 처방을 받고 그대로 실 천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85킬로그램의 건강한 체구 였는데, 60킬로그램까지 몸이 줄었고, 밥을 먹는 것조차 고통



● 좁아진 식도 하부가 관찰됨.
 ② 식도 하부에 음식물과 물이 저류되어 있음.
 ③ 식도 점막 내 터널을 통해 환상근을 절개함.
 ④ 수술 뒤 식도 내부를 봉합함.

의 연속이었다.

물을 제대로 못 먹으니 좋아하던 운동도 멀리하고, 위산이 역류할까봐 잠을 잘 때도 침대를 60도 이상 기울여서 자야 했다. 우연한 기회에 '명의'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를 알게 되어 병원을 찾았다.

조주영 교수가 진단한 김씨의 병은 '식도무이완증'. 식도무이 완증은 식도 내부 평활근 운동 질환으로 음식을 삼킬 때 정상적인 하부 식도 조임근의 이완이 없고, 중간부위는 식도는 연동운동을 하지 못해 음식물을 삼킬 수 없게 되는 증상이 특징이다. 식도가 깔대기 모양으로 바뀌고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식도 내부에 음식물이 고이고 통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식도암까지 일으키는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500여 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1명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병이다.

조주영·조원영 교수팀은 김씨에게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술하지 않은 경구내시경 근절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11월 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식도무이완증 환자에게 내시경 근절개술을 시행, 성공한 사례가 된 것이다.

환자는 수술 3일 후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고, 5일 후부터는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전에는 침조차 삼킬 수가 없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침을 삼킬수 있었다.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았다.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싶다"며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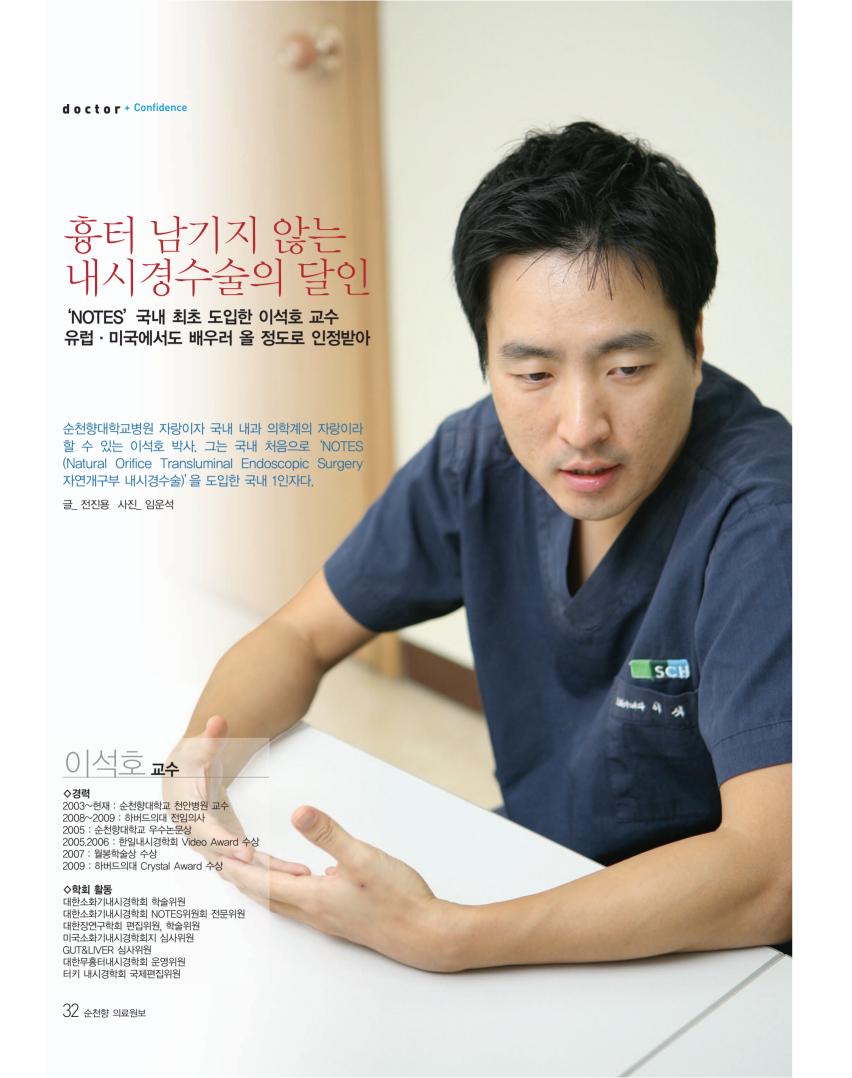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로 불리는 이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부외과 수술과는 달리 피부와 갈비뼈를 절개하지 않고 몸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선택적으로 근육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적고 회복 기간도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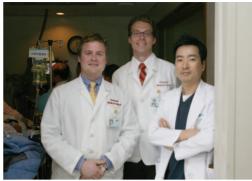
지금까지 식도무이완증은 보툴리늄 독소(보톡스) 주입법이나 내시경 풍선확장술, 외과적인 수술로 치료를 해 왔다.

그러나 보튤리늄 독소 주입법은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고 재발 률이 높다. 풍선확장술 역시 식도에 구멍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흉부외과 수술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성 협착, 체외 흉터가 남는 등의 단점이 있다.

조주영 교수는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일본에서도 한 개의 대학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술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식도무이완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영 교수팀은 2년 전부터 일본, 홍콩에 초청되어 실황시연(live demonstration)을 시행한 적이 있고, 국내에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NOTES연구회에서 동물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11월 26일에는 인하대에서 국내대학 소화기내과 의사들에게 이 수술법을 소개했다.







◀◀ 미국 하버드의대생 Mark Gromski, Christopher Miller와 이석호 박사.

◀ 해외 학술 대회 발표 모습

'NOTES' 란 입, 항문, 질, 요도 등의 신체의 자연통로를 통해 피부절개 없이 주변 장기를 수술하는 신개념의 수술법이다. 이는 자연개구부를 통해 인체에 내시경을 삽입하는 내시경 기술과 기존의 복강경 기술을 혼합한 것으로 내부 장기의 질환을 상처 없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박사는 주로 외과 수술에 적용되던 'NOTES' 를 내괴수술에 적용해 국내에 처음 도입한 주인공이다. 특히 'NOTES' 의 도입이 먼저 이루어진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이 박사의 내시경 수술을 배우려 할 정도로 이 분야의 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 'NOTES' 를 처음 도입한 이후 벌써 수많은 시술을 실시했으며 이중 단한 차례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NOTES' 가 주목받는 것은 장시간의 시술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하다는 점이다.

"NOTES'는 여성의 질, 입, 항문 등에 내시경을 삽인한 후 위, 대장, 질의 벽을 뚫고 배속으로 내시경 기구를 진입시켜 환부를 수술하고 다시 벽을 봉합하는 수술 기법으로 미용학적으로 완벽한수술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거든요." 또한 장시간의 전신마취가 아닌 의식하 진정마취상태로 시술이 이루어져 짧은 시간에 시술이 가능하고 또한 통증과 부작용도 없어 향후 가장 주목받는 수술기법 중 하나다.

이 박사는 "'NOTES' 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수술 기법으로 그 동안은 외과 수술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를 내과에 적용해 지난 2009년에는 처음으로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지난해에는 'NOTES' 수술법을 이용해 조기 위암(점막 하종양)의 전층 절제술도 시행해 성공을 거뒀다. 전신마취없이 수 면내시경만을 이용해 점막하 터널을 만든 후 종양을 전층 절제해 제거해낸 것.

"아직까지는 'NOTES' 의 적용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위암, 대장암 외에도 많은 암을 비롯한 질병에 적용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수술법을 전수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박사의 놀라운 'NOTES' 수술기법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4주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미국 하버드의대 졸업을 앞둔 'Mark Gromski' 와 'Christopher Miller' 등 두 명의 의사가 연수차 방문을 했다. 이들이 한국 연수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박사의 내시경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NOTES'를 한국의 이 박사로부터 역으로 전수받기 위해 미국인 의사가 연수를 온 것이 의아해 보이지만 그만큼 세계가 이 박사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반증인 셈이다.

## 조기 위암과 조기 대장암 내시경수술에 미국도 놀라

이들은 "조기 위암과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적 절제는 아직 미국 병원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시술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 박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반 동안 미국 하버드의대에서 전임의사로 활동했으며 그 기간 중 SCI 논문을 3편이나 발표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냄으로써 한국 의술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또한 이 박사의 수술은 가장 빠르기로 정평이 나있다. 여전히 극소수의 의사들만 가능할 정도로 고난이도의 수술을 이 박사는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앞으로도 치료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 말한다. 'NOTES'를 통해 더 많은 분야의 더 많은 질병을 수술할 수 있도록 연구에 몰두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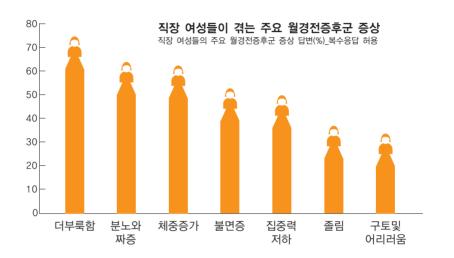
"연구에 임하는 의사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의학을 바탕으로 세포, 유전자 등 질병의 근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사. 둘째는 이미 알려져 있는 질병들의 치료를 위한 연구를 선호하는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사로서 남고 싶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난치병들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며 "연구 활동과 제자 양성 모든 면에서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특히 'NOTES'와 같은 획기적인 수술법을 더욱 발전시켜 환자나 의사들이 모두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술법 연구에 힘을 쏟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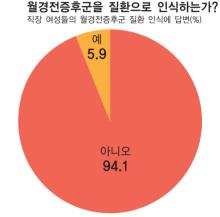
## 육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슈퍼맘', '월경전증후군' 더 심하게 앓는다

부천병원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팀, 직장 여성 월경 관련 유병률 연구결과 발표

정리 \_ 편집부







성군에 비해 더 심각한 '월경전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전증후군은 경미한 정신적 장애·더부룩함·체중증가·유방압통·근육통·집중력저하·식욕변화의 7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증상이 황체기(배란 후월경 직전까지)에 나타나는 경우다.

## 가임기 직장 여성, 일반 여성 대비 2배 이상 높아

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여성들의 월경전증후군 유병률은 74%(126명)에 달했다. 이는 한 연구기관이 2008년 지역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된 1,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 월경전증후군/불쾌장애의 유병률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현황 실태조사'에서 32.1%의 여성만이 월경전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 여성 전체 그룹을 샘플링조사했을 때보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만을 추출한 그룹을조사했을 때 월경전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왔다는 의미다.이처럼 직장 여성들의 월경전증후군 유병률이 높은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이 육아 이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태희 교수는 "직장여성들의 월경전증후군은 업무능률

저하,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등 직장생활에 큰 장애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사회적 악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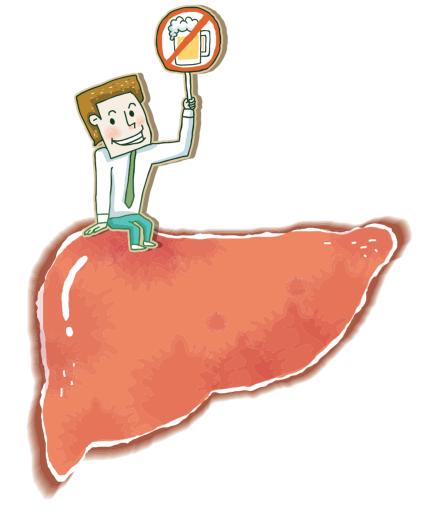
더 심각한 것은 월경전증후군을 질환으로 인지하고 있는 직장 여성이 거의 없다는 것.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170명의 여성 중 월경전증후군을 질환으로 인지하고 있는 직장 여성은 5.9%(10명)에 그쳤다. 질환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전문의 상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월경전증후군은 질환이지만 아직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명확하 게 밝혀진 것은 없다. 따라서 월경전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장 여성들을 위한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월경전증후군을 질환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여성들 스스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 개선, 생활패턴 변경 등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조언한다. 의료계에서도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4 <sub>순천향</sub> 의료원보

## 원인 불분명한 간농양 환자, 대장암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

대장암 포함 장질환 환자의 50% 이상이 간농양 질환 앓아





정승원 순천향대학교

장재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원인이 불분명한 간농양(간에 생기는 고름주머니) 환자는 대장 암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병센터 정승원·장재영교수팀은 원 인불명의 화농성 간농양 중 일부가 대장암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농성 간농양 환자 81명 중 대장내시경을 받은 37명의 결과를 분석 했다. 37명의 환자 중 21.6%(8명)에서 대장암이 진단되었고.

기타 장질환 환자 1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24.3%(9명)가 장질화(대장암 환자 포함비율)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장질환으로 인한 간농양 환자 중 당뇨가 있고, 대장의 상재균 중 하나인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이 원인 인 환자의 비율이 66.7%로 나타나 이들과의 높은 연관성이 있 음을 보였다.

정승원·장재영 교수는 "대장의 상재균이 대장암 표면의 궤양 부위를 통해 간 문맥을 따라 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간농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원인이 불분명한 간 농양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 보는 것이 좋 다"고 강조했다

정승원·장재영교수팀의 연구결과는 'Cryptogenic pyogenic liver abscess as the herald of colon cancer' 라는 제 목으로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7 월호 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는 이전까지는 증례 보 고만 있던 것을 원저로는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다.

또한 정승원, 장재영 교수는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Research'의 편집위원으로도 위촉되었다.

## ◆간농양(간에 생기는 고름주머니)이란?

간농양이란 세균이나 기생충에 간이 감염됨으로서 간에 농양 (고름주머니)이 생기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간은 균이 전혀 없 는 상태이며 세균이나 기생충을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간에 감염이 발생될 경우 간 농양이 생기게 된다. 간농양은 단발성 또는 다발성으로 생길 수 있다.

## ◆간농양의 원인

원인 미생물에 따라 화농성 간농양과 아메바성 간농양으로 분 류하며 화농성 간농양은 세균이 원인이지만 아베바성 간농양 은 기생충인 Entamoeba histolytica의 감염에 의해서 생긴 다. 화농성 간농양의 경우 간내담석, 담관염등 담도와 관련된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파열된 충수돌기염이나 골반염. 그 밖의 복강 내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후천 성면역결핍증. 만성알코올중독과 같은 면역 저하 상태에서 잘 발생한다.

## ◆간농양이 생겼을 때 증상은?

화농성 간농양은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화농성 간농양 화자의 80%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간이라는 비교적 큰 장기 의 안쪽 깊숙한 곳에 고름집이 있기 때문에 피로, 식욕 감소. 전신 근육통과 함께 체중 감소 등 막연한 증상만 발생하고 정 작 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추정할만한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이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우상복부 압통 (단순하게 아픈 것을 넘어. 누르면 더 아픈 것을 의미한다). 황 달 등이 있으며, 복통은 55%, 우상복부 압통도 55%, 황달은



10~25%만이 발생한다. 발열과 황달 그리고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하면 전형적으로 화농성 간농양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이러 한 경우는 전체 화농성 간농양 환자 10명 중에서 1명에 불과하 다. 이렇게 비특이적 증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 오한 그리 고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만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도 발 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간농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아메바성 간농양은 좀 더 추정하기 쉽다. 아메바 만연 지역을 여행한 후 발생한 간농양 환자의 95%가 여행 후 5개월 이내에 발병한 것이며, 발열이 80%, 우상복부 통증도 80%, 우상복부 압통 역시 75%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앞 서 언급한 아메바 만연 지역을 여행한 사람에게 발열과 우상복 부 통증 혹은 압통이 발생하는 경우 아메바성 간농양을 의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중 감소. 구토. 설사. 황달 등의 증상이 동 반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만으로 화농성 간농양인지. 아메 바성 간농양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 ◆간농양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방치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치료는 일단 간농양을 뽑아서 제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 로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통해서 농양을 배액시키고 정맥 내 항 생제 주입을 시행한다. 간농양의 배농과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 질 경우 임상경과는 좋아서 대부분의 화자에서 호전된다. 그러 나 간농양의 반수에서는 임상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발열 등의 증상만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치료가 늦어질 수 있는데 간농양이 심하게 진행되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패혈쇼크에 빠 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SCH

36 순천향 의료원보 2012. 01 · 02 37



## 40대를 '당뇨병' 으로부터 지켜라!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 합병증이 더 무서워…40대의 사망 원인 8위로 꼽혀



글 \_ 박형규 순천향대학교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40대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의 증가와 함께 당뇨병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도 증가하여 당뇨병이 40대의 사망원인 8위를 차지하고 있다. 250만 명 이상이 당뇨병환자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발병양상은 서구와는 다른 점이 많은데, 서구의 당뇨병환자는 대부분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만하지 않은 사람, 즉 뚱뚱하지않은 사람에서도 당뇨병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베타세포 수나 기능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마른 사람의경우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서구인에 비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양식의

서구화로 점차 비만한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에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인슐린 분비와 작용이 저하되고 따라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당뇨병의 발생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으므로 환자는 치료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만약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고혈당이 지속되어 수년만 지나도 무서운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경우, 환자는 고혈당으로 인해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설, 손실되어 갈증, 피로감, 무력감, 소변량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부에 가려움증을 느끼거나, 부스럼이 잘생기며 조

그만 상처도 잘 낫 지 않고 덧나기

쉽다. 손이나 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어설 때 현기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 반복적인 설사나 소화 장애, 배뇨곤란, 발기부전 등이 나타 날 수도 있다. 또한 눈이 침침해지거나 치주염 등 잇몸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당뇨병환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 합병 증이다. 만성 합병증은 서서히 악화되고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합병증의 발생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심각한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흡연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대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

사와 환자 모두에서 매우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우리나라 성인의 7~10%가 당뇨병환자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 이 잠재적 당뇨병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뇨병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25년까지 많게는 성인 인구의 25% 정도가 당뇨병환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음식 섭취와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식사를 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신장, 체중, 연령, 활동 정도를 고려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골고루 여러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과식하지 않아야 한다. 단순당(설탕, 꿀 등)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섬유소가 많은 잡곡, 채소류, 해조류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선택하여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시간은 하루 30-40분 정도로 주 5회 이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과 같이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담배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원흉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 적정 체중유지 및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혈당검사 등으로 당뇨병 예방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40세 이상에서는 매년 한번씩 혈당검사를 받아서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현재 자신의 혈당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체중유지 및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혈당검사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당뇨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급성및 만성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혈당 조절과함께 고혈압 및 이상지혈증에 대한 치료, 합병증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고, 당뇨병 전문의의 권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SC!

2012. 01 · 02 39



록밴드 부활의 리더 김태원. 그는 2010년 예능 늦둥이로 혜성같이 등장했다. 일부 마니아가 열광했던 부활이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 할때'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음악과 방송 모두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원의 부활이다. 김태원의 쇼는 2012년에도 계속된다. 순천향이 만났다.

글\_ 조영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위대한 탄생 시즌1〉은 김태 원을 김태원에 의한 김태원을 위한 방송이었다.

멘토로 참여한 그는 음유시인과 같은 심사평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독설보다는 멘티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단점을 보듬고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시청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 김태원의 모든 것을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라는 평가다. 예능은 음악인 김태원을 부활시켰다. 그룹 부활, 그리고 음악인 김태원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다. 한편에선 비판도 일었다. 하지만 그는 꿋꿋했다.

"예능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잠시 였습니다.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당시 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였지만, 예능은 음악인 김태원과 그룹 부활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 어줬어요."

김태원은 올해도 역시 방송인으로서 다 방면에서 매력을 뽐냈다. 그룹 부활의 리더로서도 활약이 대단했다. 공연계의 블루칩 대접을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방송 활동으로 팬의 저변도 확대돼 부활 공연장은 십대부터 오십대까지 세대막론이다.

올해 김태원은 자신보다는 주변을 부각시킬 수 있는 즉, 후배 음악인들이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 는 데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커 박완규다. 박 완규를 부활의 프로젝트 앨범에 참여시키며 재기를 도왔 다. 박완규는 방송에서 틈이 날 때마다 김태원에게 감사 함을 전했다. 박완규를 비롯해 록 음악을 함께했던 후배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백청강, 이태곤 등〈위대한 탄생 시즌1〉멘티들의 가수 데뷔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특히 시즌1의 히어로 백청강이 소속사 문제 등으로 비난 여론이 비등할 때도 끝까지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근 백청강은 김태원의 30년 지기가 새로 만든 기획사에 둥지를 틀었다.

## '기러기 아빠' 김태원의 존재 이유

김태원의 존재의 이유는 가족이다. 그는 지금 외로운 기러기 신세다. 와이프와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있었지만 둘째 아이 우현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와이프와 가족 모두가 많이 힘들어했

다. 필리핀 유학의 배경이다. 다행히 필 리핀에서 다들 잘 적응했다. 하지만 김 태원은 아들 우현을 생각할 때마다 가 슴이 먹먹하다.

"가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꿈을 꿉니다. 아들이 올해 11살인데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현이가 더 이상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멈춰서라도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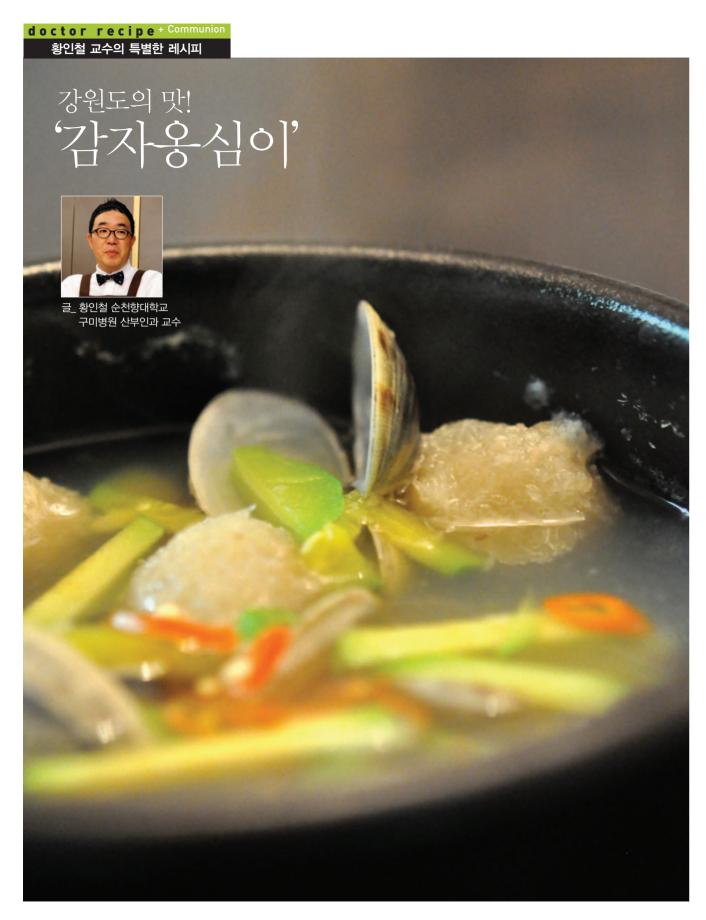
음악인의 자존심만을 고집하지 않고, 예능의 길에 접어든 것도 가족이 있었 기 때문이다. 자존심만을 내세우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것.

김태원은 순천향대학병원을 찾는 환우

들에게도 우현이와 같은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족, 또는 자신에게 아픔이 전달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듯 여러분께서도희망, 그리고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의 고통은 미래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아쉬움과 행복의 추억이 공존하는 2011년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건강, 행복, 사랑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음식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레시피를 부탁 받았을 때 한 두번의 이벤트성 칼럼이 될 것 같았지 만 많은 분들이 꾸준한 사랑을 주셔서 칼럼을 연재한지 횟수로 삼년 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늘 이야 기하는 것이지만 음식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라도 맛 집 이상의 마술을 발휘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텐트 하나 들고 추운 겨울에 강원도를 찾았을 때 추억이 담긴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젊음이라는 가장 큰 무기 하나 들고 겁도 없이 추운 겨울 캠핑에 도전했죠.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내린 급작스런 프로젝트에 막상 도착해서 펼쳐진 강원도의 이국적인 설경과 부서지는 파도의 장관은 정말 보자마자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힘들게 친 텐트가 그리 아름답고 가볍던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진 현실은 감동이 곧절망과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힘은 위대하다며 절망감을 애써 극복하려는 우리들은 얼른 텐트를 걷고 민박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와 하기진 저녁의 배고픔,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라는 말만 생각이 나더라구요. 너무 힘들어 자연의 위대한 풍경은 이미 제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찾았던 곳인 양 몸과마음을 그냥 맡겨버렸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배가 고파집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전주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방에서 라면을 꺼내 먹을까? 아니면 나가서 무엇이라도 사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따뜻한 집보다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민박집 어르신이 만들어 주신 이름도 생소한 감자용심이랍니다. 감자를 갈아서 동그랗게 만든 생소한 이 음식은 처음 먹어본 음식이지만그때의 구수함과 따뜻함은 지금까지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추억이랍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에 나온 감자옹심이는 수제비, 칼국수와는 다른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에게는 감동과 행복, 그리고 따뜻함이 똘똘 뭉친 최고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온가족이 둘러 앉아 같이 만들면 별미의 음식과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감자옹심이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 recipe

재료 바지락 1팩, 크기가 큰 감자 4개, 호박 1/4개, 고추 1개, 다진 마늘. 소금. 밀가루 한 스푼

- 1 육수를 준비합니다.
- 멸치 육수도 좋지만 저는 시원한 바지락이 생각나서 바지락 육수를 만들었답니다.
- 취향에 따라 준비하세요. 바지락은 깨끗이 해감한 뒤에 끓여줍니다.
- 2 육수가 준비되는 동안 오늘의 주인공 감자를 갑니다. 강판에 감자를 곱게 갈면 한 대접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만들어 보면 양이 얼마 안 돼요. 식구가 많으면 감자의 양을 늘립니다. 감자를 갈아서 면 보자기에 꼭 짜준 뒤 밀가루 한 스푼을 넣고 동그랗게 경단 만들듯이 반죽을 해줍니다.
- 3 준비한 육수에 넣고 끓입니다.
- 4 호박과 고추 등 야채를 넣고 다진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하면 끝.

간단한 레시피이지만 온가족이 만들면 더욱 즐겁겠죠? 새로운 한해가 시작하는 겨울날 아침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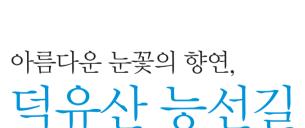


## travel + Communion

##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신년 새 희망에 어울리는 그곳, 설경이 아름다운 덕유산 능선길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 덕유산을 가기로 한 일주일 전 스마트폰 날씨 앱을 살펴보니 도착 하 루 이틀 전 눈이 내리고, 당일에는 기온 이 뚝! 떨어지겠다는 예보다. 추운 날씨 에 고생스럽지 않겠냐는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설경을 감상하기에는 날짜를 귀신같이 잡았다는 자부심이 앞선다. 당 일 새벽, 집을 나서려고 준비하는데 뉴 스 속의 기상캐스터가 낭랑한 목소리로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며 단 단히 무장하란다. 최저 기온이 영하 10 ℃를 밑도니. 바람까지 분다면 체감온도 는 영하 20℃까지도 거뜬히 내려갈 듯 하다. 기상캐스터의 말에 손난로, 양말 용 핫팩.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귀마 개까지 온갖 방한 장비에 비장한 마음 까지 더해 무주로 향했다.

글·사진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덕유산은 예로부터 덕으로 만인을 살릴 산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 다. 주봉인 향적봉은 높이 1.614m로 소백산맥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으며 해발 1,300m의 장중한 능선이 30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특히 덕유산 능선길은 봄에는 예쁜 철쭉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으로, 가을에는 울 긋불긋 단풍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길이다. 정상에 오르면 가까이로는 적 상산과 마이산 멀리는 지리산 천왕봉까지 한눈에 펼쳐진다. 고산식물인

중봉, 아름다운 눈꽃이 손짓하다 곤돌라에서 내리면 설천봉이다. 설천봉 왼편에 우뚝 솟은 봉이 덕유산 최 고봉인 향적봉이다. 쌓인 눈은 미끄럽고 오르막 계단이라 숨이 찼다. 설상 가상 향적봉을 향해 오를수록 바람이 세지는가 싶었는데 정상에서는 그야 말로 '칼바람'이 불었다. 장갑을 벗고 사진기를 꺼내니 손가락이 금세 굳 는 느낌이다. 그래도 주변 설경에 감탄하다보면 어느새 최고봉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이 겨울 산행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주목나무, 구상나무, 희귀 고산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살아서

천년, 죽어서 또 천년을 간다는 푸른 주목의 당당한 모습은 하얀 설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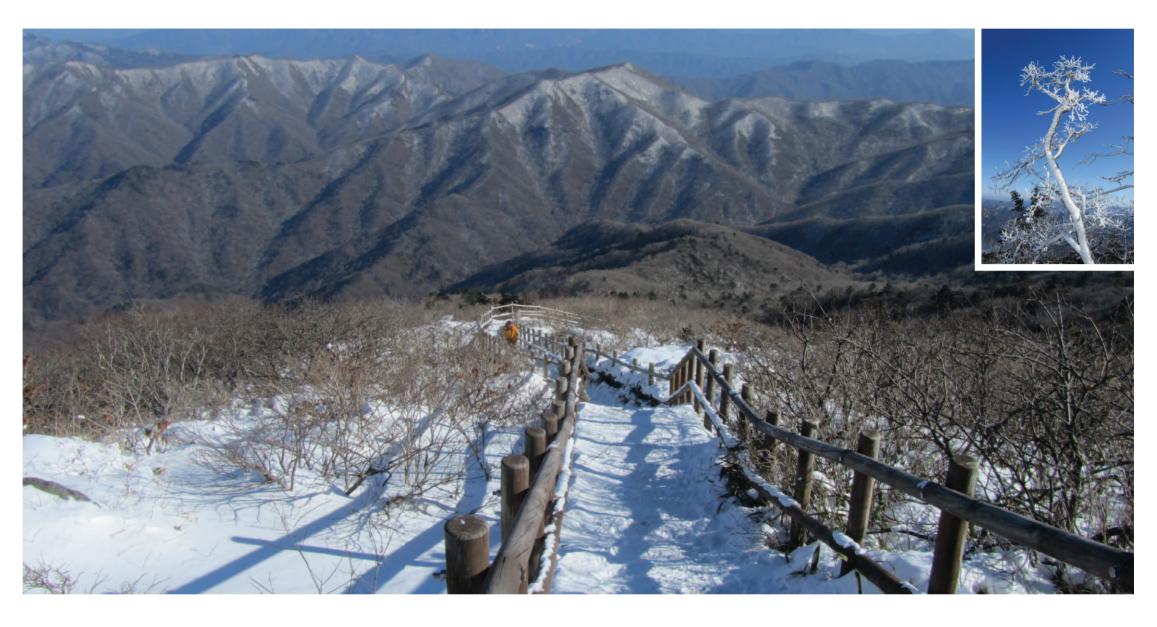
절묘하게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고, 껍질이 종이처럼 얇게 벗겨지는

은백색의 사스래 나무들은 흰 눈 사이로 그 도도한 매력을 뽐낸다.

향적봉 주변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은 더욱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아이젠을 차고 향적봉 대피소로 방향을 틀었다. 오늘 산행의 최종 목표인 중봉까지는 언덕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능선길로 걷기에 적격이었다. 해를 등지고 있는 나무 위에서 아름다운 눈꽃들이 어서 오라고 나를 반겼다. 어 느 고사목 안에는 추위를 피해 이사 온 이끼 식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 고, 여름 나절 푸른 잎을 자랑했을 나뭇가지 끝에는 빛바랜 잎들이 눈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

어느덧 중봉 전망대에 다다랐다. 전망대에서 저 멀리 보이는 산 정상들을 감상하고 아쉬움을 뒤로하며 발길을 돌렸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기념 사진을 찍으려 사진기를 세워두니 바람에 카메라가 쓰러져 버린다. 추위로 잊고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배낭에서 꺼내 보니 통째 얼어있다. '제 대로 추운 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3시간이 채 안 되는 여정으로 돌아와 다시 곤돌라 탑승장에 다다르니 눈가루의 반사로 만들어지는 환상 적인 일곱 빛깔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적봉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따라가는 것이 일품이다. 인근 맛집으로 유기 농 우리 콩만을 고집하며 전통 장류와 신선한 두부를 만들어 조리해 주 는 무주리조트 상가 내 반딧불 콩마을 식당을 추천한다.



44 순천향 의료원보 2012. 01 · 02 45



## 서바이벌 프로그램 **전성시대**에는 오디션 스타만이 '**대세**' 인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전성시대다. 공중파, 종편, 케이블 채널할 것 없이 앞다퉈 오디션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스타 등극이라는 스릴에 시청자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지만 조작 의혹 등 비난과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기도 한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열풍에 대해 각 방송사는 진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글 조영곤

2011년 공중파부터 케이블 채널까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홍수를 이뤘다. 최근 국내 한 포털사이트가 선정한 2011년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른바 서바이벌 프로그램 전성시대다. 올해의 경우 종편까지 합세해 관련 프로그램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전성시대를 이끈 것은 케이블 채널 Mnet의 '슈퍼스타 K'다 케이블 채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청률 10%대 돌파와 화제성까 지 겸비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에 자극받은 MBC, SBS, KBS 등 지상파 3사는 비슷한 유형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모든 프로그램이 시청률 등에서 높 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화제성만큼은 대단해 가요에 머물던 서 바이벌 프로그램의 진화를 불러왔다.

SBS TV '기적의 오디션'이 연기자를, MBC TV '신입사원'이 아나운서를 각각 선발했고, KBS 2TV 에서는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덕체를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선정했다. 또 KBS 2TV '톱밴드'에 서는 밴드들의 대결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최고의 밴드를 가리기도 했다. 각 방송사는 새로운 분야 개척이라는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저조한 시청률 탓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서서, 시청자들로부터 원성도 들어야 했다

'기적의 오디션은 참가자들과 관련한 논란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신입사원'은 합격자들의 거짓말 논란이, '도전자'는 일반인들의 이기적인 단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각각 제기됐다.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잠잠해 질만도 하다. 하지만 열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기록한 MBC TV '위대한 탄생' 시즌2가 방송 중에 있다. 또 SBS TV가 SM, JYP, YG 등 3대 대형기회사와 함께 신인을 발굴하는 'K팝스타'가 전파를 타고 있다.

이 밖에도 케이블 채널 ETN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 아이돌'이 올 3월에 뮤지컬 배우를 선발하는 SBS플러스 '뮤지컬스타'가 1월에, On Style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시즌4'가 각각 안방극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울러 2011년 방송가를 뜨겁게 달궜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시즌2로 돌아온다.

##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명과 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꿈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그리고 도전의 계기가 된다. 환풍기 수리공에서 일약 스타 가수로 발돋움한 허각은 꿈을 잃고, 현실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다.

울랄라세션의 리더 임윤택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무대 위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찬사를 받았다.

이들은 하나 같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애절한 사연을 갖고 있다. 애절 한 사연은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며 시청률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꿈, 희망, 용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정표 를 심어줬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방송사는 스 타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경품을 제공하고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 만, 실제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방송사는 오디션 프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애절한 사연을 갖고 있다. 애절한 사연은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며 시청률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꿈, 희망, 용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정표를 심어줬다.

로그램을 통해서 광고, 간접 광고, 협찬 등 큰 수익을 얻었다.

'슈퍼스타K3'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승철은 "그 동안은 오디션을 통해서 스타를 발굴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그들이 바른 인성과 내공을 갖고 스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향후 오디션 프로그램에 발탁되더라도 어느 정도 성숙해져 데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작진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막연히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평범한 사람이 벼락스타가 되는 현장을 본 대중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희망과 자신감을 준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무턱대고 도전에 나서게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된다.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냉정히 평가하지 못하고, 막연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 붐에 편승해 노래방과 가요학원들도 덩달아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문이다. 노래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개인지도를 받는 경우엔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도 인기 강사의 경우엔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라는 소문이다.

## 명품구두에는 과학적인 제조법이 있다





4.200만원짜리 세계 최고가 구두 '테스토니'

세계 정상의 테너 가수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신는 테스토니. 이 가죽 구두 가격은 100만원을 웃돌고, 최고가는 4,200 만원까지 한다. 하지만 구두를 신어 본 사람은 대부분 테스토니의 평생 고객이 된다.

테스토니 구두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급 명품이 된 비결은 무엇보다 '주머니 공법(Glove Effect)'으로 불리는 과학적인 제조법에 있다.

이것은 구두 안의 솔기를 두 번 박는 특수 기법으로, 구두 겉창과 안창 사이에 별도의 주머니 모양의 창을 달아, 구두 밑창이 발 모양에 자연스럽게 맞도록 한 것이다. 또 구두의 앞뒤 무게 균형을 구두의 중심점에 일치시켜 오래착용해도 발에 피로가 없도록 했다.

구두는 신어서 편안해야 한다는 테스토니 사의 구두 철학은 창립자인 아메데오 테스토니 때부터 다져졌다. 아메데 오는 이탈리아에서 구두 장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12세기에 볼로냐는 밀라노와 피렌체, 베니스 사이의 교통 요충지로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가죽을 다루는 장인들이 이곳으로 하나둘 모여들면서 구두 공장이 생기고 가죽 장인 길드도 만들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볼로냐산 구두가 튼튼하고 아름답다는 소문이 전국에 펴졌고, 그들의 뛰어난 구두 제조 술은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아메데 오 역시 유명한 구두 장인 집안의 후손이었다.

테스토니는 하나의 구두를 만드는 데 무려 177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9개의 공정만 기계로 대치하고 나머지 168개의 단계는 모두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작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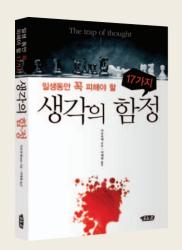
국내 중소기업 중앙CS에 다니는 한 임원은 "테스토니는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회사의 가죽 구두와는 달리 밑창까지 모두 가죽으로 만들고, 최고급 가죽만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른 구두와는 차별화되게 최고의 품질을 가진 수제품 구두를 만드느라 하루에 한 개의 구두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명품을 아는 리더라 면 모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보통 30년 경력에서 많게는 50년 경력의 장인이 작업한다. 현재 꾸준히 후손을 키우고 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테스토니 구두가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최고만을 고집하는 장인의 숨결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인 제조법 때문이다.

전세계 리더들이 명품 구두 테스토니를 보고 감탄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테스토니를 한번 신으면 다음의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이다.

아! 테스토니. SCH

book + Communion stage + Commu



2012년 새해 '순천향' 독자께 드리는 꼭 피해야 할 17가지 생각의 함정

"사람은 자기 생각의 노예이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은 모두 그 사람의 생각에 좌우된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생 각과 편견, 잘못된 습관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생각 은 내려놓고 잊어버릴 줄도 알아 야 한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 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정리\_ 편집부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생각의 함정들을 17가지로 정리하고 그 함정들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제시함으로써, 실패와 불행을 피하고 행복과 성공으로 다가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함께 찾아온다. 그러나 생각의 함정을 슬기롭게 피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고 행복과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은 행복과 성공을 향해 이미 절반은 나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이상하게 꼬이기만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늘 심시숙고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상황이 자꾸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다. 결국 나쁜 결과까지 얻게 되면 내 이성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꽤 자주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생각의 함정' 때문이다. 생각의 함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도사리고 있다. 일단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이성적인 추측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난 뒤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야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반문한다. 생각의 함정이 장난을 친 것이다.

##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고 자신을 극복하게 해주는 지혜의 책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성공을 막고 실패를 불러오는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이 생각의 함정에 빠져 비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생각의 함정 은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파멸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생각의 함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면,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생각의 함정들을 17가지로 정리하고 그 함정들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제시함으로써, 실패와 불행을 피하고 행복과 성공으로 다가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함께 찾아온다. 그러나 생각의 함정을 슬기롭게 피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고 행복과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은 행복과 성공을 향해 이미 절반은 나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노예이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모두 그 사람의 생각에 좌우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 잘못된 습관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생각은 내려놓고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한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1월 19일부터 3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성남, 광주, 대구 등 공연

##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공연

글\_ 한정현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팀의 아시아 투어 공연이 성대한 막을 올렸다.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팀의 아시아 투어는 중국의 3대 도시를 거친 다음 더욱 탄탄해진 무대로 서울에 입성해 2012년 1월 19일(목)부터 세종문화화관 대극장에서 6년 만에 내한 공연을 가진다. 뮤지컬〈노트르담 드 파리〉는 2005년 첫 번째 오리지널팀 투어 공연과 2006년 앵콜 공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연이어 갱신하며 대한민국 뮤지컬 관객들을 사로잡은 바 있다. 서울 공연 후 3월 1일~3월 4일 성남아트센터, 3월 8일~3월 11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3월15~3월 25일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 시공을 초월한 숙명적인 사랑이 전하는 감동

R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방인이었던 집시 여인을 사랑한 꼽추 콰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린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노트르담의 꼽추〉를 원작으로 프랑스의 전설적인 극작가 플라몽동과 유럽의 대표적인 작곡가 코치안테 등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 뭉쳐 완벽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뮤지컬〈노트르담 드 파리〉는 곡 위에 대사가 얹혀진 대표적인 송 쓰루(Song through) 뮤지컬로 작곡가 코치안테는 이 작품을 'People's Opera'라 소개한다. 주옥 같은 넘버들로 가득 찬 OST는 현재까지 1,200만 장의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웅장한무대는 예술적인 축약을 통해 상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맷 로랑(Matt Laurent) 등 오리지널 배우와 프로덕션 투어

2005년, 2006년 오리지널팀 최초의 내한공연을 통해 국내 수많은 여성 팬들을 열광시켰던 콰지모도 역의





맷 로랑(Matt Laurent)이 이번 아시아 투어에 도 함께한다. 여기에 〈노트르담 드 파리〉, 〈돈 주앙〉 등 수많은 프랑스어권 공연에서 활약한 프롤로 역(役)의 로베르 마리엥(Robert Marrien)을 비롯하여 영국 웨스트엔드 무대에서 실력을 쌓아온 쟁쟁한 실력파 배우들이 참여한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세트(길이 20m, 높이 10m)와 100kg 이 넘는 대형 종들,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가고일 석상 등 30톤이 넘는 오리지널 프로덕션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연출가 질 마으(Gilles Maheu)와 예술감독 웨인 폭스(Wayne Fowkes) 등 30여명의 오리지널 스탭들이 함께해 2012년 최고의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언어인 영어 버전으로 한국을 찾는다.

## News + Communication

##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 김성구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취임 의대학장에 김선주 교수, 기획조정실장에 김동원 교수

본지 발행인이자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서울병원 심장내과 김성구 교수가 12월 28일 취임했다. 의대학장에는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김선주교수가 취임했고, 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서울병원 병리과 김동원 교수가 새롭게 임명됐다. 서울병원장에는 정형외과 서유성교수가 부원장에는 변동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각각 취임했다. 부천병원장은 마취통증의학과 황경호 교수, 부원장에는 소화기내과 이문성교수, 외과 김형철교수 등 2명이 각각 취임했다. 천



안병원 이문수 원장(외과)과 박준수 부원장(소아청소년과), 구미병원 오천환 병원장(이비인후과)은 유임됐으며, 구미병원 부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김천환 교수가 취임했다.

## '순천향'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수상

본보 '순천향'이 지난해 12월 16일 근로복지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1년도 한국병원홍보협회 총회 및 세미나에서 '2011년도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에 선정,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은 매년 1개 사보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순천향'은 다양한 콘텐츠와 짜임새 있는 구성,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매 호마다 재단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 - 처향대한교

## 본교 의약공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신설

순천향대학교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생명과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의약공학과와 생명 시스템학과를 개설했다. 의약공학과의 설립 취지는, 첫째로 글로벌 비전을 갖춘 의약공학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둘째로 의약학 관련 산업 전문 공학기술자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순천향대 의약공학과는 학생들에게 신약소재 개발과 관련된 의약화학 분야,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 의약품의 효능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분야, 제약공정 및 품질관리 분야 등 특성화된 분야를 교육함으로써 의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재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의료계, 어려움 함께 극복해요" 서울병원. 협력 병의원 만남의 장

서울병원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7시부터 그랜드하얏트 서울 리젠시룸에서 '이미 다가온 고령화사회'를 주제로 제18회 협력 병의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협력관계 증진과 의료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는 황재훈 용산구의사회장, 최백남 성동구 의사회장, 이윤수 중구의사회장을 비롯한 협력 병의원 원장 및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병준 병원장과 안무영 부원장,



변동원 진료협력센터장 등 40여 명의 교수진과 협력센터 및 원무팀 직원들이 참석해 교류의 장을 연출했다. 신병준 병원장은 "지역 최고의 병원은 협력 병의원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비전"이라며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협력 병의원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병원 환자 위한 틈새음악회 개최 바움 실내악단의 목관 5중주 선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신병준)은 지난해 12월 19일 모자보건센터 지하 2층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환자와 함께하는 틈새 음악회를 열었다. 사이버나이프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마련한 음악회는 오 보에, 바순, 플롯, 클라리넷, 호른 등 목관 5중주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바움 실내악단은 〈캐롤 메들리〉〈마법의 성〉〈호두 까기 인형〉등을 연주해 환자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다.



## 환자와 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200여 명 초청해 푸짐한 경품 제공

서울병원(병원장 신병준)은 지난해 12월12일 동은 대강당에서 환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고객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병원에서 보내는 환자와 가족들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는 소아 청소년과 이우령 교수와 김경리 전공의의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를 비롯해 난타 공연, 벨리댄스, 초청가수의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환우들에게 다과와 푸짐한 경품을 제공해 열기를 더했다. 안무영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우 한 분 한 분께 위안과 감사를 드리며 빨리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서울병원 제12회 QI경진대회 개최

서울병원(병원장 신병준)은 지난해 11월 18일 동은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Ql(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결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10개 팀의 구연 발표와 20개 팀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졌다. 감염관리팀/중환자실팀이 '요로감염 감소를 위한 다중적 감염관리 활동'을 발표해 구연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비뇨기과/본관8병동팀은 '비뇨기과 CP개발을 통한



임상활동의 효율화'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외과/본관6병동팀은 '복강경 당남절제술 환자의 CP개발 및 적용효과'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응급의료센터와 중앙공급실이 각각 '응급실 내원(초 진)환자의 외래진료연계 활성화'와 '체계적인 멸균품 관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우수상을 받았다. 신병준 병원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활발한 QI 활동으로 진료절차 개선 및 환자 안전, 고객 서비스 만족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인 질향상 활동으로 병원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 "감염관리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감염관리 아카데미 기본 과정 성료

순천향대병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4회 감염관리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운영해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순천향인 모두가 감염관리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란 목표 하에 진행 중인 아카데미 과정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등 30명의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1 시간에 따라잡는 감염관리, 감염관리대상 미생물 배우기, 직원의 감염 노출 예방, 알기 쉬운 감염성 질환, 항균제 이해의 지름길, 혈관 카테터 관련 감염 예방, 의학통계의 해석'등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 분야별 세분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감염내과 이은정 교수를 비롯해 진단검사의학과 최태윤 교수, 감염관리팀 김진화 정연수 전문간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개원 10주년 기념 '사랑의 바자회' 개최

부천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사랑의 바자회'가 지난해 11월 9일(수) ~ 11일(금)까지 3일에 걸쳐 원내 지하 1층과 1층 정원에서 개최됐다. 제9회 행사로 개최된 올해 바자회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여느 해와 달리 큰 규모로 진행됐다.

바자회는 알뜰장터, 먹거리 장터, 체험마당, 친환경 코너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익금은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 후원에 쓸계획이다. 부천병원은 2011년을 다문화 가정 후원의 해로 정하고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사업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신설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 1사 1촌' 체결한 인천시 계양구에서 의료봉사

부천병원이 '1사1촌'을 맺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제83차 의료봉사'를 지난해 11월 26일(토) 실시했다.

계양초등학교 상이분교에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부천 병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총 6개 진료과 교직원 40여명이 참기했으며, 계양구 주민 103명을 대 상으로 214건의 의료검진을 실시했다.



## 서울병원 동정

## 조주영 · 조원영 교수팀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소화기암센터 조주영·조원영 교수팀(복진현)은 지난해 12월 3일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추계학회 학술대회에서 조기위암의 하이브리드 노츠 치료법으로 우수학술상, 위점막하종양의 하이브리드노츠 치료법으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이임순 산부인과 교수,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회장 취임 서울병원 이임순 교수가 지난해 11월 27 일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 이동환 소아청소년과 교수 EBS 명의 출연

서울병원 이동환 교수가 지난해 12월 9일 EBS 명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 부천병원 동정

## 홍수진 교수팀/소화기내과

12.3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 20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추계학 술대회'에서 홍수진 교수팀(홍수진·김화종)이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재난심리지원센E

12.5 소방방재청이 주최한 '2011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례발표대회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재난심리지원센터(센터장 정한용)가 사례발표 우수상 수상

## 임훈 교수/응급의학과

12.14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 응급의료 전진대회'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정한용 교수/정신건강의학과

12.30 재난심리지원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 서존 교수/심장내과

11.7~11 미국에서 열린 Cardiovascular research foundation에서 주제 발표

## 김준모 교수/비뇨기과

11,16~22 프랑스에서 열린 14th World Congress on Controversies in Obstetrics에 서 주제 발표

## 임수빈 교수/신경외과

11.24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7회 캄보디아 연례 수술 콩그레스' 에서 초청강연

## 백상현 · 차장규 교수/영상의학과

11,28~12,2 미국에서 열린 북미영상학회에서 주제 발표

## 박춘식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12.5~9 멕시코에서 열린 XXII World Allergey Congress에서 주제 발표

## News + Communication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제12차 진료협력병원 만남의 밤 행사 개최

부천병원 '제12차 진료협력병원 만남의 밤' 행사를 지난해 12월 1일(목)고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89개 신규 협력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및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부천병



원은 이날 참석한 협력병원 관계자들에게 타이핀을 달아주는 세리모니를 진행,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제안했다. 협력병원 체결식에 이어 개최된 제9회 진료협력 심포지엄에서는 박재성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외과 정준철교수,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 신경외과 황선철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부천병원은 개원 이래 총 462개 병원과 협력 병원을 체결했다.

## '뮤지컬 음치(音治)' 공연 성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한 '뮤지컬 음치(音治)' 공연이 지난해 12월 1일(목) 부천병원에서 성료됐다. 뮤지컬 음치(音治)는 유명 뮤지컬의 곡들을 재구성한 갈라 콘서트 형태로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 안과 장지호 교수, 정형외과 이상 혁 교수 등을 비롯한 의료진, 환자, 한국노바티스 직원이 직접 참여해 투 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환 자와 환자를 돌보느라 여가 시간을 즐기기 어려운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 는 시간을 마련했다.



##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개소식 개최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개 소식'이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 데 지난해 12월 8일(목) 개최됐다. 응 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신속 치료' 와 '소아 응급환자 배려'를 목표로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새단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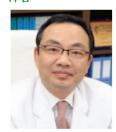


기존보다 면적이 늘었으며, 중증환자들을 위한 구역과 소아구역, 보호자와 구 급대원을 위한 휴게실 등을 마련해 더욱 편리하고 깨끗한 의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게 됐다.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이문수 병원장, 대한위암연구회 회장 취임

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이 최근 대한위암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1993년 위암 치료와 학문적 발전을 위해 출범한 대한위암연구회는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학회다. 임기는 2012년 1월부터 2년. 신임 이문수 회장은 전국 외과의사가 뽑은 한국 최고의 위암수술 전문교수로 선정되는 등 위암수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한 위암학회 상임이사,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상임 이사, 대한외과학회 평의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 대장암센터. 2011 대장암 심포지엄 열어

천안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백무준)는 지난해 11월 28일 병원 교육관 2층 강당에서 '2011' 대장암 심포지임'을 열었다. 국내 대장암 수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장암 관련최신 의학지식들을 놓고 토론을 벌인심포지엄에서는 ▲ Quality control program for fresh frozen tissue



in colorectal cancer(순천향의대 병리학교실 정동준 교수), ▲ How to preserve sexual and urinary for rectal cancer surgery(순천향의대 외과 백무준 교수), ▲ Single port right hemicolectomy for right side colon canter(카톨릭의대 외과 이상철 교수), ▲ Standard operation for left sided colon cancer(을지의대 외과 김창남 교수) 등 총 4명의 교수가 연자로 나서 주제 발표를 했다.

## 당뇨클리닉, 지역 당뇨인 대상 공개강좌 열어

천안병원 당뇨클리닉은 지난해 11월 8일 병원 별관 강당에서 '당뇨병 공 개강좌 및 식단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단국대병원, 천안 의료원과 공동 개최하던 진행 방식을 탈피해 오랜만에 천안병원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10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는 혈당 측정을 시작으로 내분비내과 전성완 교수와 이해연 영양사의 '당뇨병 바로 알기'와 '당뇨병의 식사요법' 등의 시청각 교육을 비롯, 올바른 당뇨식단 전시회와 추천 메뉴 시식회 등이 이어졌다.

## QI 활동 10주년 행사 열어

QI 활동 10주년을 맞은 천안병원 QI 실(실장 김은석)은 원내에서 자축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린 행사는 QI 경진대회를 비롯, 그 동안 QI 활동에 적극 협조해준 교 직원과 환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



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QI 경진대회가 교육관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년간 QI활동을 벌인 24개 팀(구연 11팀, 포스터 13팀)이 참석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만성중이염 수술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신관2층병동과 이비인후과 연합팀이 최고상을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국가 만성질환 및 손상 예방 활동에 기여

천안병원이 철저한 환자 의무기록 관리 활동으로 보건복지 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퇴원손상 심층조사' 완료 보고회에서 유 공 병원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퇴원 손상심층조사'는 보건복지부가 효율적이고 과학적 기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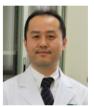


만성질환 및 손상 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사업이며, 조사에는 100병상 이상 전국 170개 병원이 참여했다. 천안병원은 조사 참여 병원 중 의무기록 정보 데이터의 정확성, 자료 제출기간 엄수, 조사 참여율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정태석 교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 선임

재활의학과 정태석 교수가 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 선임됐다. 재활의학 및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인 정 교수는 최근 3년간 축구 종주국인 영국의 리버풀 존 무어대학교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했으며 잉글랜드축구협회 피지컬 트레이너 자격을보유, 2010 FIFA 월드컵 한국대표팀을 비롯 K리그 프로팀의 축구과학 관련 컨설팅 및 현재는 대한축구협회와 다양한 스포츠의·과학 프로젝트를 수행, 컨디셔닝전문 강사를 담당하고 있다.



## "선진 의료 배우러 왔어요" 파라과이 보건의료관리자 방문

파라과이 보건의료관리자들이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의 보건 정책 및 선진의료시스템을 전수받기 위해 구미병원을 방문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파라과이 주요 병원과 국립의료기관의 의료진 및 정책 요원 15여명이 참여해 병원의수술실, PET-CT검사실, 심혈관센터, 종합건강증진센터 등주요시설을 둘러봤다.



## '사랑의 인술에 함박웃음 가득' 농촌마을 의료봉사

지난해 11월 12일, 구미병원 의료봉사단은 구미 고아읍을 찾아 무료진료를 펼쳤다. 이날 무료 진료는 고아라이온스클럽과 병원이 공동 주최, 라이온스클럽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며 병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검사와 진료로 농민들의 건강을 살폈다.



## 순천향햇살아이센터, 사회복지유관기관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내 사회복지유관기관의 성과 창출 및 긍정적 조직문화 발굴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구미병원 순천향햇살아이센터(학대아 동 지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산재보험 재활전문 의료기관 선정

구미병원이 〈산재보험 재활전문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재활전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산재근로자가 적정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을 평가한 뒤 인증한다. 구미병원은 산재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조기에 회복하는데 앞장 서게 된다.



## 천안병원 동정

## 이석호 교수/소화기내과

이석호 교수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에서 열 린 대한소화기내시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 신원용 교수, 조아라 교수/심장내과

10.21~28 이탈리아에서 열린 ICCAD에서 포 스터 발표

### 박종석 교수/정형외과

10.24~28 태국에서 열린 Stryker Thailand 에 참석

## 소재완 교수/정형외과

10.31~11.10 미국에서 열린 'NASS'에서 포 스터 발표

## 나주옥 교수/호흡기내과

11.3~6 중국에서 열린 'APSR' 에서 연제 발표

## 이세환 교수/소화기내과

11.4~10 미국 간질환 학회 제 62차 연례회의 에서 포스터 발표

### 문성택 교수/산부인과

11.7~12 미국에서 열린 국제복강경학회 참석

## 권영준 교수/신경정신과

11.8~12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기분불안장애 포럼(IFMAD)'에서 포스터 발표

### 선우재근 교수/산부인과

11.18~20 중국에서 열린 요녕중의약대학 국제 학술토론회에서 연제 발표

## 전윤수 교수/비뇨기과

11,29~12,3 일본에서 열린 세계비뇨기과학회 에서 포스터 발표

퇴직 이상수 교수(정형외과)



## 구미병원 동정

김태우 교수/신장내과 11.8~16 미국 필라델피 아에서 열린 미국신장학회 참석, '복막투석 첫 1년 동안 조기 신기능감소가 신체구성성분과 임상결과에 미친 영향' 포스터 발표

### 김태훈 교수/심장내과

11.7~11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3회 TCT 2012 중재시술학회에 참석

'대동맥 완전 폐색 환자를 새로운 중재시술 방 법으로 치료한 증례'로 Best Challenging Case Award 선정

## 안지훈 교수/심장내과

11.24~27 제8회 ECHO HONG KONG 참석 'A complex anomaly of persistent left superior vena cava,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associated with sinus venosus atrial septal defect' 발표, 2nd runner up 수상

### 황헌규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캐나다 Hamilton General hospital, Mcmaster University 유학 후 진료개시

퇴직 이명갑 교수(응급의학과)

## 순천향의대 8회 동기들의 졸업 20주년 기념 사은회를 마치고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저녁, 서울 반포에 자리 잡은 JW메리어트호텔에서 순천향대 의대 제8회 동기들의 졸업 2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해마다 의과대학 동기들의 졸업 20주년을 자축하는 모임이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8회 동기들이 모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2월부터 행사 준비를 시작해 여러 동기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참여를 발판으로 행사 당일까지 꾸준하고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동기들 간의 끈끈한 우애와 단결 력, 그리고 모교에 대한 애착이 밑거름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신민철 동기의 능숙한 진행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행사는 내빈들의 축사로 시작되어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 간의 격의 없고 다정다감한 대화로 이어졌으며, 8회 졸업기 대표인 위규석과 김대익 동기가 의과대학 및 동창회 발전기금 1억원을 의대학장님께 전달함으로써, 순천향 의과대학 및 동창회의 발전에 일조함은 물론, 동기 모두의 가슴 속에 자부심과 애교심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전국 각지에서 의사로서의 본업에 충실하며 모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여러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추억을 되새기며 덕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었건만, 그간 찾아뵙지 못하던 여러 은사님들께 인사를 여쭙고 은혜에 감사드리니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하였고 많은 내빈들께서도 바쁜 주말이지만 기꺼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음을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스승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된 의미의 명문대학은, 현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과 재학생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전통과 미래를 만들어 감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순천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모금활동에 적극 동참해 준 동기들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기들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부상조는 물론, 이제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에 초석을 단단히 다진 순천향대학교의 눈부신 비상을 위해 동문으로서, 선배로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순천향의대 8회 졸업생 대표 위규석

### ※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현황

· 동문회원님 430명이 참여하여 118,910,000(일억천팔백구십일만원)이 적립 되었으며,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도록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힘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바랍니다! 하나은행 662-910022-17605 순천향의과대학동창회

회비 : 월1만원 (일시불 연 10만원)

## - 순천향의대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 · 일시: 2012년 1월 28일 (토) 오후 6시
- · 장소 : 순천향대학교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 (모든 동문회원님들께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순천향의과대학 동창회사무실(임시)

- ·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6-32 유진빌딩 2층
- · Tel: 032)546-7174, 총무(010-5273-2031) 간사(010-9554-0820)
- · E-mail: jaws62@naver.com
  - (\*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 Letter of Thanks

## 이른둥이 우리 아기, 청진기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1월 12일 28주 4일째 몸무게 1.1kg 아이를 출산했고 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두 달 반 정도 있다가 2011년 1월 25일 날 퇴원한 김현범 아기 엄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1.1kg라는 몸무 게로 태어난 순간부터 인큐베이터 안에서 퇴원하기까지 두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잘 돌봐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난 날로 쳐서 딱 일 년 만에 돌잔 치를 했습니다. 지금 교정 개월 수는 10개월이구요, 몸무 게는 어느덧 11,3kg 나가며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돌잡이는 청진기와 돈을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돌잔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과 우리 부부의 품 에 안겨서 지내고 있는 것도 위료진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치료해주시고 돌봐주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생이 중 환자실 간호사분들과 소아청소년과 박일성 교수님, 황인 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 평생 병원 의료 진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차가운 날씨 감 기 조심하시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생이 중환자실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 11월 15일 김현범 아기 보호자 올림

## 환자에게 희망을 준 원격진료

2009년 1월부터 원격진료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상자 김 미옥 님을 만난 건 2009년도 12월경이었다. 방문간호사 로부터 요청을 받아 방문을 하게 된 것이었다. 방문간호사 업 대상자로 등록된 남편은 2008년도부터 희귀난치성 질 환인 '루게릭'으로 진단받고 투병 중이었다. 원격진료 대 상자인 김미옥 님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층 근 무력증'으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남편이 와상 상태로 누 워만 있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건강은 돌볼 여력이 없었다. 남편의 병을 진단받기 위해 이리 저리 병원을 방문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불치병인 '루게릭'으로 진단됨 에 따라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 급속도로 나 빠진 남편의 간병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본인의 건강은 더더욱 챙길 여력이 없었다.

가정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방문간호사가 원격진료를 연계하면서 김미옥 님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 원 신경과 박형국 과장님과 화상진료를 통해 다시 진료를 ' 받게 되었다.

청양에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는 보통 아침부터 서두르면 오후 늦을 무렵에야 도착할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도 많다. 게다가 경비까지 생각하면 '원격진료가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 상자에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남편을 혼자 간병해이하는 상황에서 본인진료를 위해 하 루를 할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약을 복용하지 못하다가 원격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담당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집에 앉아서 진료 받고 약까지 택배로 전달해주니 너무 편하고 고맙습니다"

김미옥 님은 두 달에 한 번씩 진료를 갈 때마다 이렇게 고 마음을 표시하신다. 이런 대상자들이 많다면 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고 활성화될 텐데, 다만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는 것이 담당자로서 가장 큰 문제점이고 고민이다. 사업의 적 · 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진료 의뢰 대상이 만성질환 이나 피부질환 위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대상자의 발 굴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원격진료가 주는 편익은 상당히 크다. 적극적 사업홍보와 방문간호사 등 연계인력에게 대 상자 발굴을 요청하여 원격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해야겠다.

이상옥 간호사 / 청양군보건의료원







## Healthy Dream, SCH! Mind 4 thou the Ma













